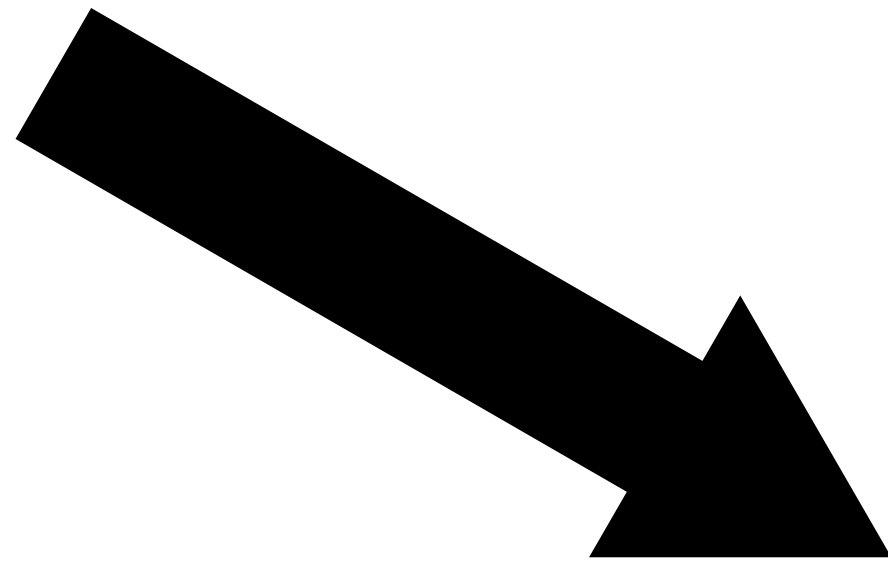


OUR SET



OUR SET

OURLABOUR × OSANG GWON

CONTENTS

인사말	6	FOREWORD	7
김진엽		JINYUP KIM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	8	OUR SET: OURLABOUR×OSANG GWON	9
윤여진		YOON YEO JIN	
세트1	17	SET 1	17
세트2	33	SET 2	33
세트3	49	SET 3	49
세트4	65	SET 4	65
세트5	77	SET 5	77
세트6	93	SET 6	93
세트7	105	SET 7	105
세트8	121	SET 8	121
세트9	133	SET 9	133
아워세트: 조각의 해상도 갱신	155	OUR SET: UPDATE THE RESOLUTION OF SCULPTURE	160
추성아		SUNGAH SERENA CHOO	
작가 인터뷰	161	ARTIST INTERVIEW	161
작가 약력	163	BIOGRAPHY	163

OUR SET

인사말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2019년 3월 개관 이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는 개관 3주년을 맞아 관람객 중심의 미술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예술작품으로 관람객과 소통하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2022년 첫 번째 전시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을 개최합니다.

조각가 권오상과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은 동시대 현대미술이 지닌 유연성과 확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진과 조각의 개념을 실험적으로 전복시키는 권오상의 작업과 미술을 기반으로 공간의 구조와 연출 방식을 고민하는 아워레이보의 협업을 통해 사진, 조각, 공간이 조응하는 새로운 연대와 공감의 장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예술작품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하여 작품을 출품해 주신 아워레이보와 권오상 작가께 감사드립니다. 조각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로 인하여 작가-미술관-관람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시를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JINYUP KIM
DIRECTOR OF SUWON MUSEUM OF ART

OURLABOUR × OSANG GWON

Since opening in March 2019, Suwon Art Space Gwanggyo has been continuously holding special exhibitions under various themes to become a venue where you can meet culture and art in your daily life. Suwon Art Space Gwanggyo, celebrating its 3rd anniversary, will hold *Our Set: OURLABOUR×Osang Gwon* as the first exhibition of 2022 aiming to establish itself as a visitor-oriented art museum, a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visitors through artworks and provide a variety of artistic experiences.

Our Set: OURLABOUR×Osang Gwon is a collaboration between sculptor Osang Gwon and creative group OURLABOUR, focusing on the flexibility and expandability of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Osang Gwon, who experimentally subverts the concepts of photography and sculpture, and creative group OURLABOUR, who contemplates on the structure and displaying methods of space based on art, a new place of solidarity and sympathy in which photography, sculpture, and space correspond can be encountered. It will be a chance to experience works of art from various angles in daily life.

We would like to thank OURLABOUR and Osang Gwon for their art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It has become a venue to contempl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art museum-visitor once again by attempting a new interpretation of sculpture and space. Also,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gain to everyone who worked hard for this exhibition. We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Suwon Art Space Gwanggyo in the future.

Thank you.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
윤여진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OUR SET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개관 3주년 기념전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은 조각가 권오상과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사진과 조각의 개념을 실험적으로 전복시키는 조각가 권오상과 미술을 기반으로 공간의 구조와 연출 방식을 고민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전시의 형태를 제시한다. 특히 주차장, 백화점, 수원컨벤션센터와 연결되어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닌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의 공간적 특징에 주목하여 동시대 현대미술이 지닌 유연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주지하듯 이번 전시는 소위 ‘미술관 전시’라는 기존의 전시 형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하여, 백화점 같은 상업공간이나 모터쇼, 혹은 패션쇼 등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조 명이나 연출 방식 등을 빌려 전시를 구성하였다. 다양한 매체로 실험적인 시도를 지속하는 권오상의 작업과 공간에 관한 연구를 모색해온 아워레이보의 협업을 통하여 동시대 미술의 범주 안에서 작품의 감상과 작가의 영역, 미술관이라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개의 세트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권오상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워레이보의 작품과 공간 연출이 더해져 독특한 형식으로 펼쳐진다. 전시의 구성은 작품의 연대기 순이 아닌, 작품의 특징을 반영한 자동차 쇼케이스, 패션쇼 무대 뒤의 분장실, 스튜디오 촬영 현장, 자동차 출고 타워 등의 전시 방식을 선보인다. 실물 크기로 제작된 슈퍼카 시리즈의 〈더 스킵프처〉, 사진 조각 시리즈의 〈데오도란트 타입〉, 이미지의 조합이나 제거 등 콜라주 형태의 〈뉴 스트럭처〉, 〈릴리프〉 등 권오상의 작업 전반에 드러나는 독창성을 비롯한 성격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을 만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각이라는 장르의 매체 실험을 넘어 사진, 조각, 공간, 디자인, 작가, 미술관, 관객 등 다양한 주체와 객체가 여러 방식으로 조우한다.

자동차 쇼케이스 현장처럼 연출된 ‘세트1’은 2005년부터 제작된 〈더 스킵프처〉 시리즈 중 〈더 스킵프처 3〉, 〈더 스킵프처 4〉로 구성하였다. 〈더 스킵프처〉 시리즈는 현대적인 사물을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와 작업 방식으로 제작한 작업이다. 실제 자동차의 크기로 제작된 〈더 스킵프처〉는 매우 현대적인 사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의 손자국을 담은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명 슈퍼카 엔초 페라리와 부가티 베이론을 본떠 제작한 〈더 스킵프처〉 시리즈는 자동차 전시장처럼 연출된 공간에서 이내 다시 현시대의 명품이라 불리는 사물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좌대가 아닌 검은색 카펫, 천정에 설치된 아워레이보가 제작한 화살표 모양의 조명은 리듬감이 더해진 음악과 함께 슈퍼카가 지닌 역동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세트2’는 브론즈, 대리석 등 무거운 전통 조각의 재료 대신 가벼운 압축 스티로폼에 사진을 콜라주의 형태로 부착하는 권오상의 대표적인 사진 조각 시리즈 〈데오도란트 타입〉으로 구성하였다. 〈데오도란트 타입〉은 인물을 화사하게 보이도록 효과를 주는 메이크업 조명(볼 조명)을 만나 마치 패션쇼의 분장실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조명은 화장기를 더한 인물의 모습처럼 보이는 효과를 통하여 거대한 크기의 인물 조각이 지닌 표정, 포즈 등 작품이 가진 특징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아워레이보의 화려한 연출 방식이 더해진 권오상의 〈데오도란트 타입〉은 전통적인 조각상을 모티프로 제작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전시 공간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진의 다양한 요소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권오상에게 촬영 세트는 친밀한 공간이다. 때문에 ‘세트3’은 촬영 현장과 같이 연출되었는데, 여기서는 〈데오도란트 타입〉 중 〈와상〉 시리즈로 구성하였다. 〈와상〉 시리즈는 〈데오도란트 타입〉의 제작 기술이 정점에 달했을 때 시작한 작업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초기 〈와상〉 시리즈에 속하는 2016년 제작된 〈비스듬히 기대 누운 남자〉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가 제작한 메디치가 분묘의 〈여명과 황혼〉을 모티프로 제작하였다. 반면 최근 제작된 〈와상〉 시리즈는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Henry Moore) 작품에서 형태와 조형적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수집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더해졌다. 사진의 2차원의 특징과 조각의 3차원의 특징을 동시에 담아내는 〈와상〉 시리즈는 아워레이보가 제작한 아이소핑크 좌대 위에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한다. 아이소핑크는 권오상의 〈데오도란트 타입〉 내부의 주재료로, 아워레이보는 이 아이소핑크를 좌대의 재료로 삼아 나무나 돌로 제작된 일반적인 좌대와는 차별화된 조합을 보여준다. 관람객의 시선을 아래쪽으로 유도하고자 했던 낮은 형태의 좌대는 헨리 무어의 작품에 사용되었을 법한 낮고 넓은 형태인데, 이는 층고가 낮고 긴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의 공간적인 특징과 매우 효과적으로 어우러진다.

OUR SET: OURLABOUR × OSANG GWON

YOON YEO JIN

CURATOR, SUWON MUSEUM OF ART

OURLABOUR × OSANG GWON

The special exhibition that marks the 3rd anniversay of Suwon Art Space Gwanggyo, *Our Set: OURLABOUR×Osang Gwon* is a collaboration between sculptor Osang Gwon and creative group OURLABOUR. Sculptor Osang Gwon, who experimentally subverts the concepts of photography and sculpture, and creative group OURLABOUR, who contemplates on the structure and displaying methods of space based on art, present a new exhibition form for the art museum.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uwon Art Space Gwanggyo which has openness and expandibility by being connected to the parking lot, department store and Suwon Convention Center, this exhibition will experimentally present the flexibility that today’s contemporary art holds.

As mentioned, this exhibition deviates from the former exhibition form, so-called ‘art museum exhibitions.’ Therefore, lightings or displaying methods used in other sectors like commercial spaces such as department stores, auto shows, or fashion shows are borrowed to compose the exhibition. With the collaboration between Gwon, who continuously makes experimental attempts with various media, and OURLABOUR, who seeks to study spaces, Suwon Art Space Gwanggyo wishe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erceive the appreciation of works within the scope of contemporary art and the artist’s domain, as well as the role of a cultural space as an art museum from a new perspective.

This exhibition, which consists of 9 sets, uniquely unfolds centering on Gwon’s works along with the works and spatial designs of OURLABOUR. The exhibition features the showcasing of an auto show, backstage dressing room of a fashion show, studio film set, car tower, etc.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works, not following a chronological order. Gwon’s overall works including the Sculpture series where supercars are created life-sized, the photography-sculpture series *Deodorant Types*, *the New Structure* series which are in the form of collages with images combined or removed, *Relief* series, etc. will meet venues that contain their traits. Through this exhibition, various subjects and objects such as photography, sculpture, space, design, artist, museum, viewer, etc. will encounter in various ways going beyond the experiments of medium in the genre of sculpture.

‘SET 1’, designed like an auto show showcase, is composed of *The Sculpture 3* and *The Sculpture 4* from *the Sculpture* series produced since 2005. *The Sculptures* series are works of contemporary objects created with traditional materials and methods of sculpture. *‘The Sculpture’*, made in the size of a real car, looks very contemporary but when observed closely, it has an uneven surface containing the artist’s handprints. However *the Sculpture* series modeled from the famous supercars Enzo Ferrari and Bugatti Veyron are once again lead to be recognized as luxuries of today in an area designed to look like an auto show hall. Also the black carpet replacing a pedestal, and the arrow shaped lighting installed on the ceiling designed by OURLABOUR emphasize the dynamism of supercars along with the rhythmic music.

‘SET 2’ is composed of *Deodorant Types*, Gwon’s representative photography-sculpture series made from lightweight compressed styrofoam instead of traditional heavy materials such as bronze or marble, with photos attached on the surface in the form of a collage. Globe bulbs give the effect of making a person look brighter so are called ‘vanity lights’, and these circular lights create an atmosphere like that of a fashion show dressing room. The effects of the lightings that make people look as if they are wearing makeup emphas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such as the facial expressions or poses that the large-sized human figures display. Gwon’s *Deodorant Types* added with OURLABOUR’s colorful presentation, evoke a unique and captivating atmosphere unseen in normal exhibition venues even though the works got its motif from traditional sculptures.

To Gwon, filming sets are familiar to the artist since he creates works using various factors of photographs. ‘SET 3’ is designed like a scene of a photo shoot, and composed of the *Reclining Figure* series from Gwon’s *Deodorant Types*. *Reclining Man Drinking* made in 2016 belongs to Gwon’s early Reclining Figure series, and got its motif from *Dusk and Dawn* of the Medici Family’s tomb created by Michelangelo. However the recently produced *Reclining Figure* series were formatively inspired by the shapes

OUR SET

‘세트4’는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모빌을 권오상의 방식으로 오마주한 작품 **〈붉은 셔츠와 휘슬, 칼더의 서커스〉**로 구성하였다. 칼더의 **〈서커스〉** 이미지를 수집하고, 수집한 이미지를 전통적인 조각의 양감이 아닌 얇은 판형으로 제작하여 천장에 매단 형태의 작업이 바로 권오상의 모빌이다. 바닥에 닿을 듯 크게 확대된 모빌은 낮은 위치까지 늘어져 관람객이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조각이 관람객과 함께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2020년 한 백화점의 쇼윈도에 설치되었던 **〈또 다른 즐거운 곳으로 여행〉**은 이번 전시 ‘세트5’에서 아워레이보의 작품과 함께 새롭게 선보인다. 작품의 입체감과 평면성을 동시에 부각시키는 아워레이보의 작품(조명)과 여행을 떠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배경의 공간 연출은 전면만 볼 수 있는 쇼윈도 안에 설치되었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감상을 이끌어낸다. 반사판과 조명으로 이루어진 아워레이보의 작품은 록 페스티벌의 공연 무대를 비추는 듯한 형상으로 리듬감을 더하고, 우주의 행성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형태로 권오상의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부각시킨다.

〈더 플랫〉 시리즈는 잡지에서 오려낸 여러 사물을 철사에 지지대 삼아 세운 뒤 대형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작업이다. ‘세트6’을 구성하는 〈더 플랫〉 시리즈는 ‘작은 종이장이라도 공간을 차지하며 혼자 설 수 있다면 조각’이라는 권오상의 조각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다. 〈더 플랫〉 시리즈의 초기 작업에 해당하는 〈더 플랫 16, 17, 18〉은 여러 해 동안 패션 잡지에 등장했던 보석의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제작된 〈더 플랫〉 시리즈는 『월페이퍼(Wallpaper)』라는 잡지에서 그 달에 주목하고 있는 사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이렇게 평면의 이미지를 조각으로 만들고, 사진 촬영을 통하여 다시 평면으로 완성하는 〈더 플랫〉 시리즈는 확장된 대상과 소재의 활용과 매체의 변환으로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조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크로마키를 연상시키는 배경과 세트장에서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십자 형태의 표식을 더하여 **〈뉴 스트럭처〉**가 촬영 현장의 주인공처럼 연출된 공간이 바로 ‘세트 7’이다. **〈뉴 스트럭처〉** 시리즈는 칼더의 스태빌(stabile)을 원전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더 플랫〉** 시리즈의 오려낸 이미지를 서로 지지하도록 세워 2차원의 평면 이미지를 3차원의 거대한 조각으로 새롭게 구현한 것이다. 세트7은 보여주고자 하는 형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배경을 지우는 방식의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하여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뉴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각각의 이미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이 작업이 **〈더 플랫〉** 시리즈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손에 쥐고 감상할 수 있는 조각을 만들고자 제작된 연작 **〈스몰 스컬프처〉**는 ‘세트8’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스몰 스컬프처〉**는 르망 24시간 레이스에 등장하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납작한 형태의 자동차를 약 1/43 정도의 비율로 축소하여 제작한 작업이다. 2017년부터 제작된 이 작업은 이번 전시에서 98대를 동시에 보여준다. 한 손에 칠 수 있는 크기의 작품은 아워레이보가 제작한 자동차 출고 타워 형태의 구조물에 놓여져 관람객을 만난다. 타워형 구조물은 작품을 안쪽과 바깥쪽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작품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특히 자동차의 표면에 남아 있는 작가의 손자국은 구조물의 바깥쪽 벽면에 설치된 자동차 도장 부스에서 사용하는 조명 덕분에 더욱 강조된다.

〈더 플랫〉-〈뉴 스트럭처〉로 이어진 권오상의 조각 시리즈는 부조 형태의 **〈릴리프〉**로 연결된다. ‘세트9’에서는 자작나무 위에 이미지를 새겨 나무판을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완성하는 부조 시리즈 - **〈릴리프〉**를 볼 수 있다. 서로 연결성이 없는 이미지를 중첩하여 평면으로 완성된 작품은 옵아트(Optical Art)를 연상시키는 아워레이보의 벽면 디자인과 만나 평면의 구조 안에서 입체감을 드러낸다. 크기가 각기 다른 동그라미를 반복적으로 배치한 방식은 ‘벽면’이라는 또 다른 판형 위에 올려진 콜라주와 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사진, 조각, 공간이라는 각기 다른 요소는 9개의 세트 안에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시각 어법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전시 관람의 형태를 넘어 더욱 확장하고자 하였다. 권오상의 전반적인 작업은 아워레이보가 연출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매체의 실험이 아닌 전혀 다른 작업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 신선하고 독특한 전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작품 구성과 차별화된 공간 연출 방식으로 이루어진 작품 구성의 시도는 작품-공간, 작가-미술관-관람객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자리로 동시대 미술이 지닌 유연성과 확장성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OURLABOUR × OSANG GWON

of Henry Moore’s works, and added with a new method of searching and collecting images of a specific person and expressing them into an abstract form. *The Reclining Figure* series simultaneously capturing the two dimensionality of photographs and the three dimensionality of sculptures attempt another change by lying on top of the Isopink pedestals made by OURLABOUR. Isopink is used as the main material in Gwon’s *Deodorant Types*, and OURLABOUR used Isopink for the pedestals showing distinct combinations different from normal pedestals made of wood or stone. The low pedestal which leads the viewer’s gaze downward is formed low and wide like those of Henry Moore’s works, and goes effectively with the spatial traits of Suwon Art Space Gwanggyo, which has low ceilings and a long structure.

‘SET 4’ is composed of *Red Shirt and Whistle*, *Calder’s Circus*, an homage to Alexander Calder’s mobile in Gwon’s own way. Gwon collected im-ages of the work *Circus*, made from Calder’s esquisses and drawings, and the collected images were created into thin plates not possessing the tradi-tional volume of sculptures. Gwon’s mobile is these plates hanging from the ceiling. The mobile, which has been greatly enlarged almost touching the floor, hangs extremely low so that the viewers are lead to observe the work closely, and the sculpture presents a way of occupying space together with the viewer.

A Trip to Another Joyful Place, previously installed in a department store show window in 2020, is newly presented in 2022 through ‘SET 5’ with the works of OURLABOUR. OURLABOUR’s work (lightings) which simultaneously emphasizes the two dimensionality and three dimensional-ity of Gwon’s work, and the background designed to heighten the feeling of going on a trip bring out various viewing points that could not be seen when the work was only seen from the front when installed in the show window. OURLABOUR’s work consisting of reflectors and lightings adds rhythm as if illuminating the performance stage of a rock festival. And the shape like the sun shining upon the planets in space emphasizes the many factors composing Gwon’s work.

The Flat series are photographic works made by cutting out various objects from magazines, attaching wires to the back as support for them to stand up, and then shooting them with a large camera. *The Flat* series composing ‘SET 6’ hold Gwon’s notion that ‘even the smallest piece of paper that occupies space and stands alone can be considered a sculpture.’ *The Flat 16, 17, 18* from the early *the Flat* series contain images of the many jewelry, found in fashion magazines throughout the years. The recent *the Flat* series used images from the magazine *Wallpaper* focusing on the objects dealt in that month’s edition. In *the Flat* series, the flat images became sculptures, and through shooting them with a camera they are then again completed as two dimensional works. The series present a new way of expressing sculptures in the realms of contempo-rary art through expanded subjects and materials as well as transforma-tion of medium.

‘SET 7’ presents the *New Structure* series as the main star of a pho-to shoot with the chroma-key-like background and cross-shaped marks used to focus the camera at sets. *New Structure* originates from Calder’s stabiles, erecting the cutout images of *the Flat* series to support each oth-er, newly realizing the two dimensional images as large three dimensional sculptures. ‘SET 7’ was designed by choosing a chroma-key background to remove the backdrop to concentrate on the form, leading the viewer to focus on the artwork. This method provides a visual experience to focus on each of the images constructing the *New Structure* series, reminding that the work was derived from *the Flat* series.

The Small Sculpture series, created so that sculptures could be ad-mired while held in the hand, can be encountered in ‘SET 8.’ are works where not complex but simple and flat shaped cars driven in the 24 Hours of Le Mans are reduced to the ratio of approximately 1/43. 98 cars from the series, which were made since 2017, will be shown at once in this ex-hibition. The artworks which can be held in one hand meet the viewers placed in a structure like a car tower made by OURLABOUR. The tow-er-like structure was designed so that the works could be seen from the inside and outside, leading the viewers to observe even the details. Es-pecially the artist’s handprints remaining on the surface of the works are

highlighted by the lightings used in automotive paint booths installed on the exterior of th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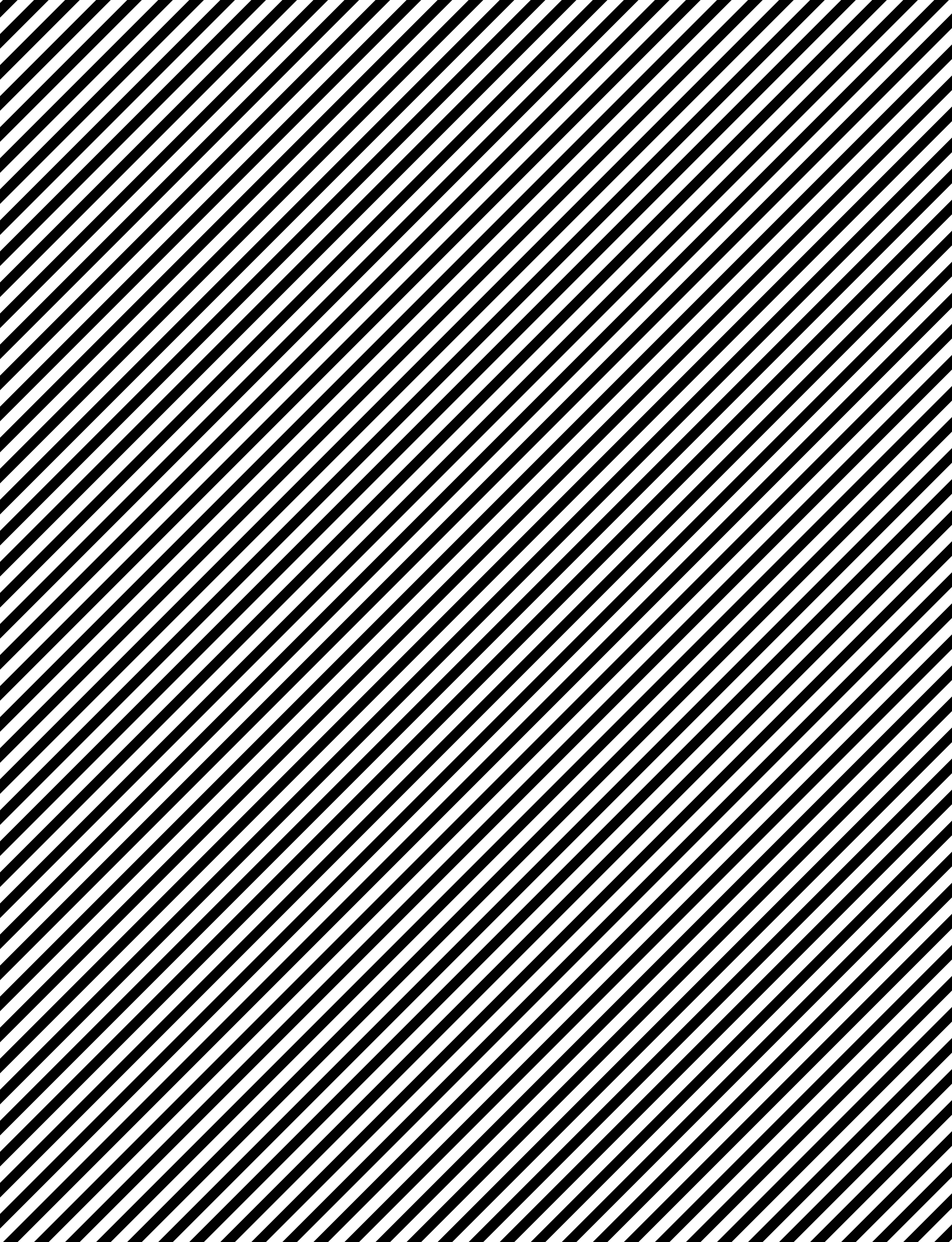
Gwon’s sculpture series developing from *the Flat* to the *New Structure*, are then connected with the *Relief* series in the form of reliefs. ‘SET 9’ presents the *Relief* series, birch wood panels with images printed on them stacked up so that the two dimensional images are completed into three dimensional reliefs. The works where unrelated images are overlapped and then completed two dimensionally, reveal their three dimensionality when met with OURLABOUR’s wall design reminiscent of op art. The re-peated arrangement of circles of different sizes creates a unique atmo-sphere, like a collage placed on another plate called a ‘wall.’

The different elements of photography, sculpture, and space show a new visual language of contemporary art in the 9 sets and try to expand the general form of exhibition viewing. Gwon’s overall works were com-posed in a fresh and unique exhibition form so that they could be viewed as a different style of work rather than just being an experiment of new media in the spatial designs of OURLABOUR. The attempt of composing artworks in a distinct displaying method of space different from the gener-al artwork compositions seen in art museums will create a venue to con-template on the new relationships between artwork-space, artist-muse-um-viewer, becoming a place to experience the flexibility and expandibility of contemporary art.



OUR SET





S1

OUR SET

[아워레이보] <더 스텝프체> 시리즈를 가장 잘 보여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고, 작품이 놓이는 공간 자체가 쇼케이스 같은 느낌이 드는 유리창 구조로 되어 있어 자동차 전시장처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공간을 모터쇼의 전시장처럼 연출하여 조각의 형태를 갖고 있는 멈춰있는 작업이지만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곡선을 그리는 듯한 리듬을 갖은 음악을 선택하여 작품과 함께 연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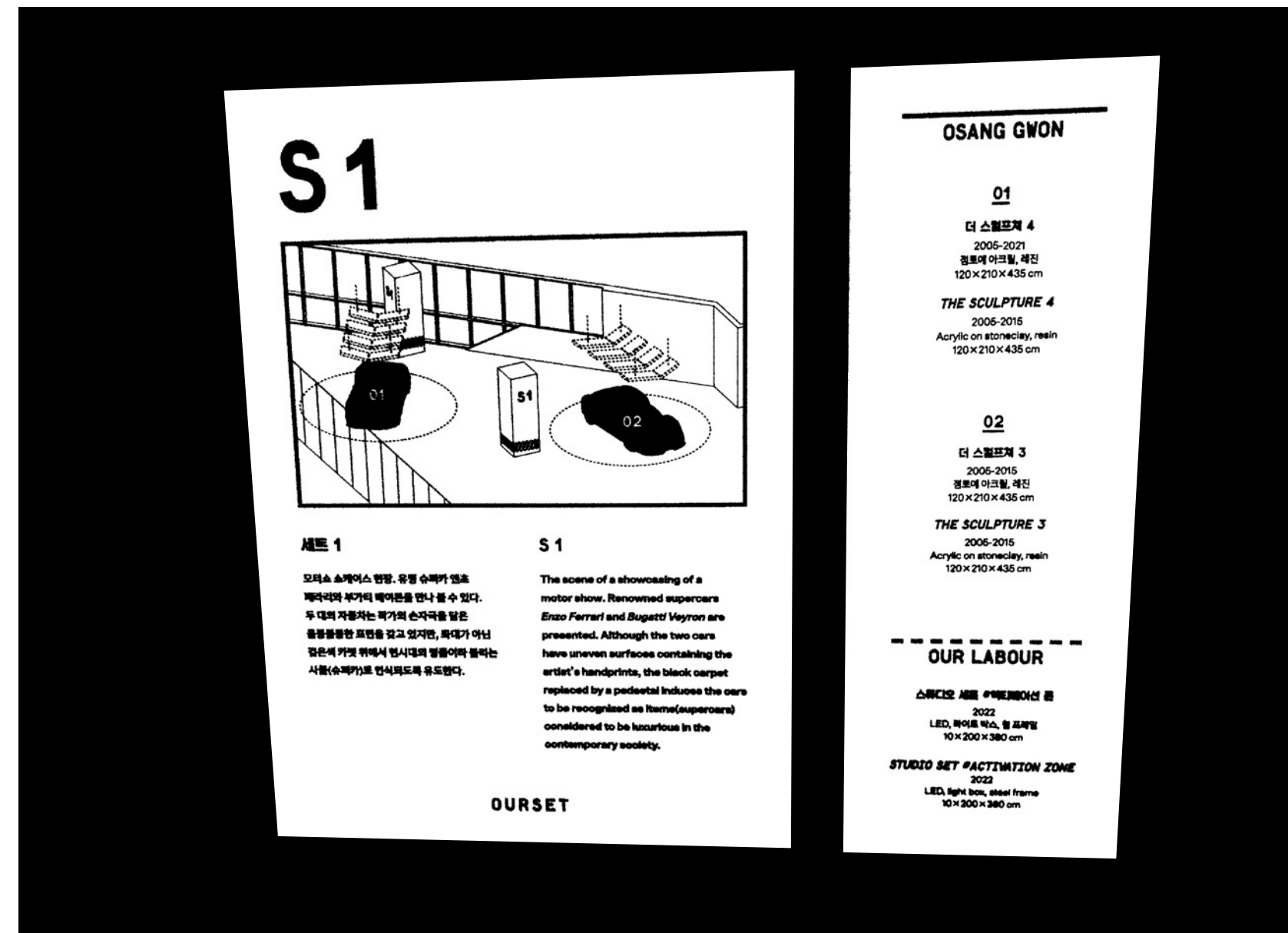
[권오상] 사진 조각 시작 이후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정물 조각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 당시 슈퍼카에 주목했었어요. 자동차는 현대적인 사물이고 기술과 디자인이 집약된 어떤 덩어리이기 때문에 동시대적인 조각으로 만들기 적합한 듯했어요. 검색으로 수집한 이미지나 미니어처 자동차를 보고 작업을 했죠. 정교하게 축소된 미니어처 자동차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진과 수치만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면 실물과 오차가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오차 안에서 어떤 예술이 발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작품의 표면에 로댕의 조각처럼 작가의 터치가 담겨 있는데 이 터치가 바로 예술작품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죠.

S 1

[OURLABOUR] We thought about the best way to present *The Sculpture* series, and since the place where the works are installed seem like a showcase with glass window structures, we came up with an idea to create a sort of car showroom. By creating this space as an auto show exhibit hall we wanted to give the immobile artworks with sculptural forms a dynamic feeling. So we selected music with a rhythm that seems to be drawing a curve to be played with the works.

[OSANG GWON] As I started a new series of works after my photography-sculptures, I made many attempts to create contemporary still life sculptures using traditional materials, and at that time I focused on supercars. Cars are modern objects and a mass concentrated with technology and design, so it seemed suitable to be created into contemporary sculptures. I worked with the images collected by searching the Internet, or with miniature cars as references. I thought errors will occur when compared to the real subject if I made artworks referring only to elaborately reduced miniature cars, or photos and numbers that can be found on the Internet. So I went on thinking that wouldn't some kind of art reveal itself in those errors. Also the works' surface holds the artist's touches as the sculptures of Rodin, and these touches are meant to look like a work of art.

OURLABOUR × OSANG 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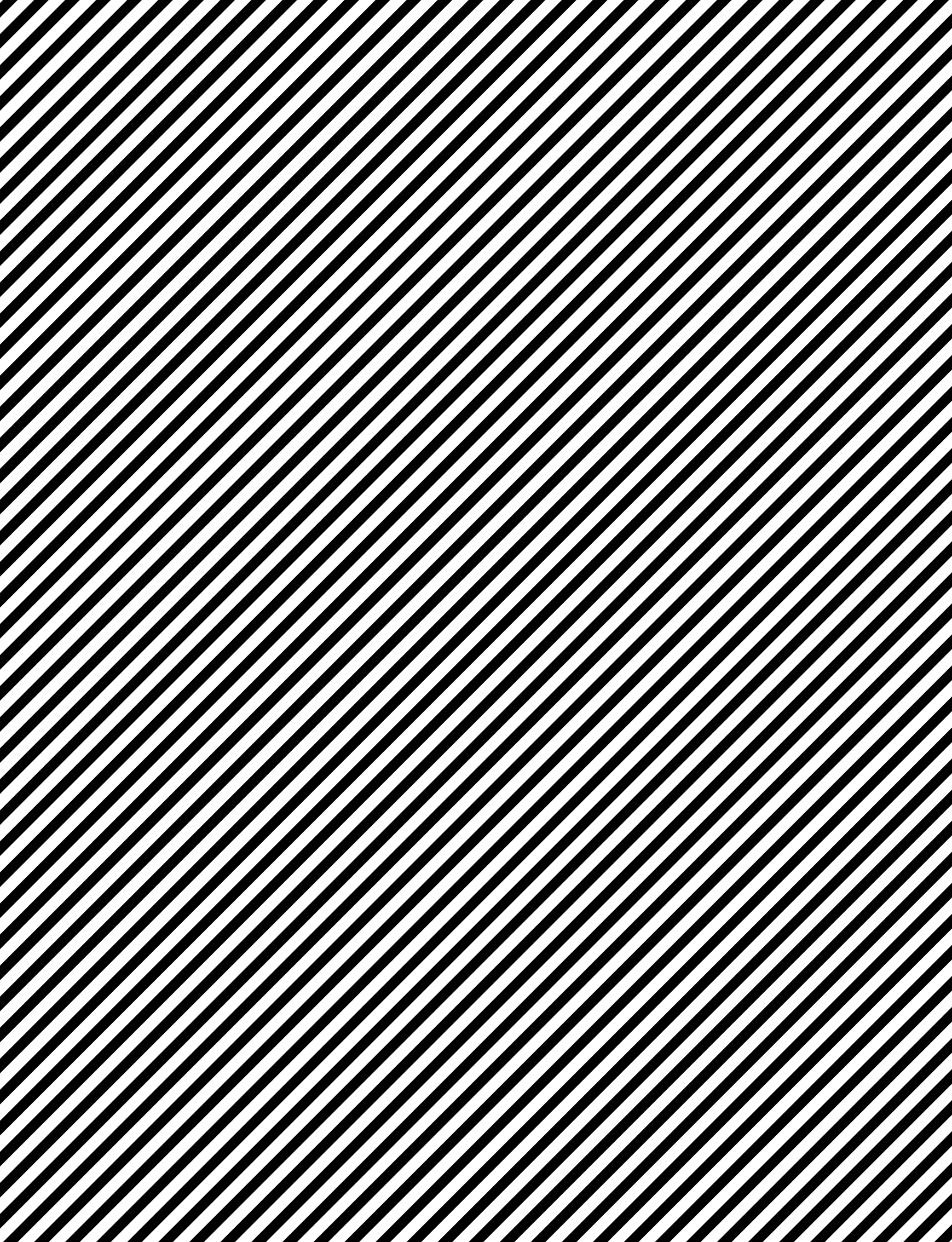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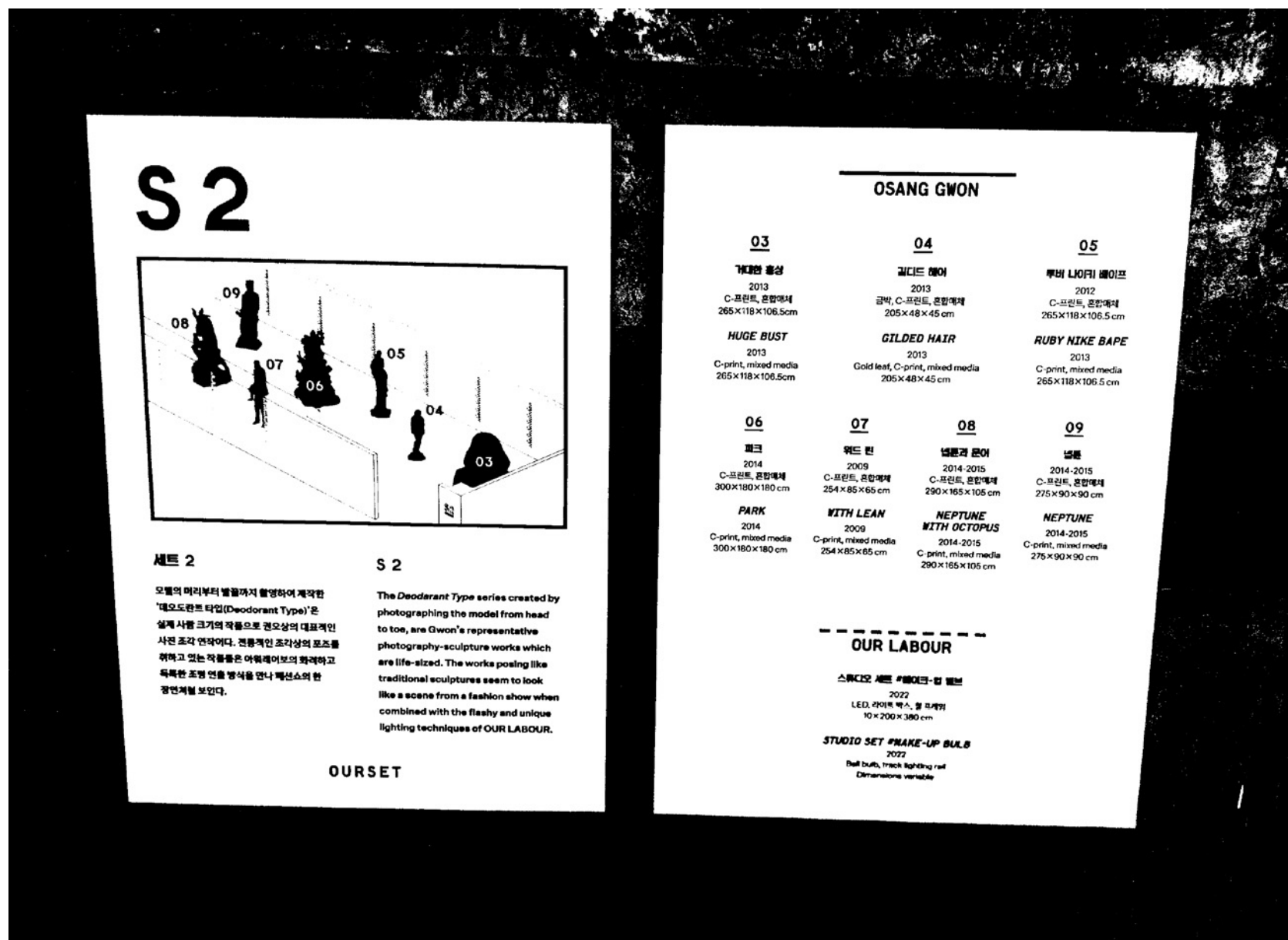
S 2

[권오상] 201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데오도란트 타입>은 초기 사진 조각이 가지고 있던 단순한 입상, 흉상을 지나 점점 복잡해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런 형태들은 베르니니의 조각이나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들에서 연원한 형태들이 많고, 조각의 역사에 주로 등장했던 포즈들이예요. 그리고 커다란 수염이나 머리 모양 등이 강조되는 조각이 많고, 인체가 복잡하게 얽혀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아워레이보] 볼 조명은 무대 뒤편에서 화장하는 공간, 파우더 룸에 설치되는 메이크업 라이트예요. 배우들이나 화장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얼굴을 보다 밝고 따뜻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이지요. <데오도란트 타입>은 인물 중심의 작품이고 형태가 라이프 스퀘일로 만들어져 이 조명을 사용하면 조금 더 화장기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실제로 <데오도란트 타입>의 작품은 볼 조명을 만나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게 연출되었습니다.

[OSANG GWON] The *Deodorant Types* from the mid 2010s up to now have gradually become more complex in form, being more than simple standing figures or busts as in the early photography-sculptures. Many of these forms were derived from the sculptures of Bernini or the Renaissance period, and these are the poses that mainly appear in the history of sculpture. Also many of the sculptures emphasize the big beards or hairstyles, and bodies are intricately entangled with each other creating a single large mass.

[OURLABOUR] Globe bulbs are used for vanity lights backstage in makeup stations or powder rooms. These are lightings that enable the faces of actors or people applying makeup to appear brighter and warmer. *The Deodorant Types* are people-oriented works and made life-sized, so we thought using these lights will make them appear a little more like wearing makeup. In fact *the Deodorant Type* works are featured more softly and beautifully with the globe bul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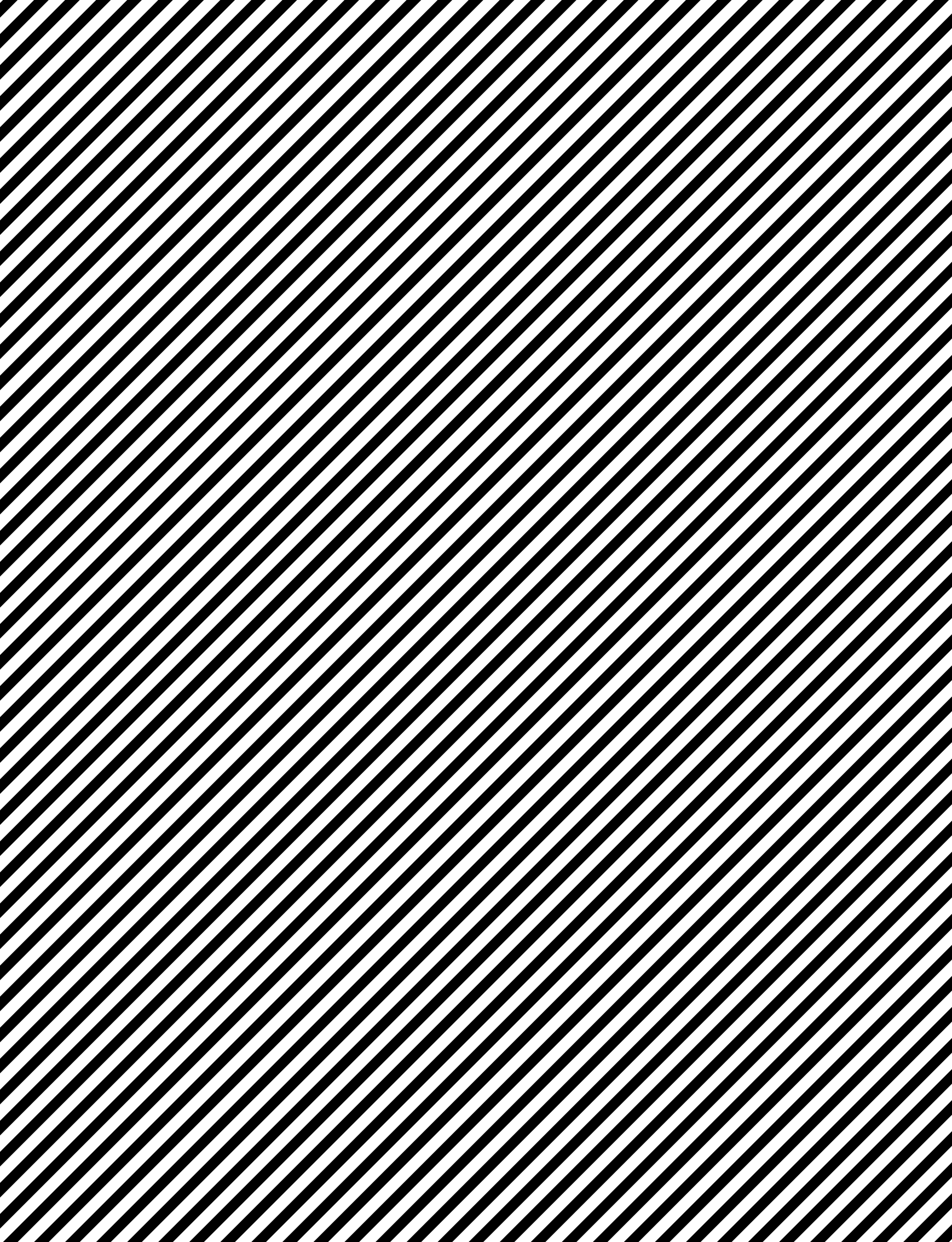












S3

OUR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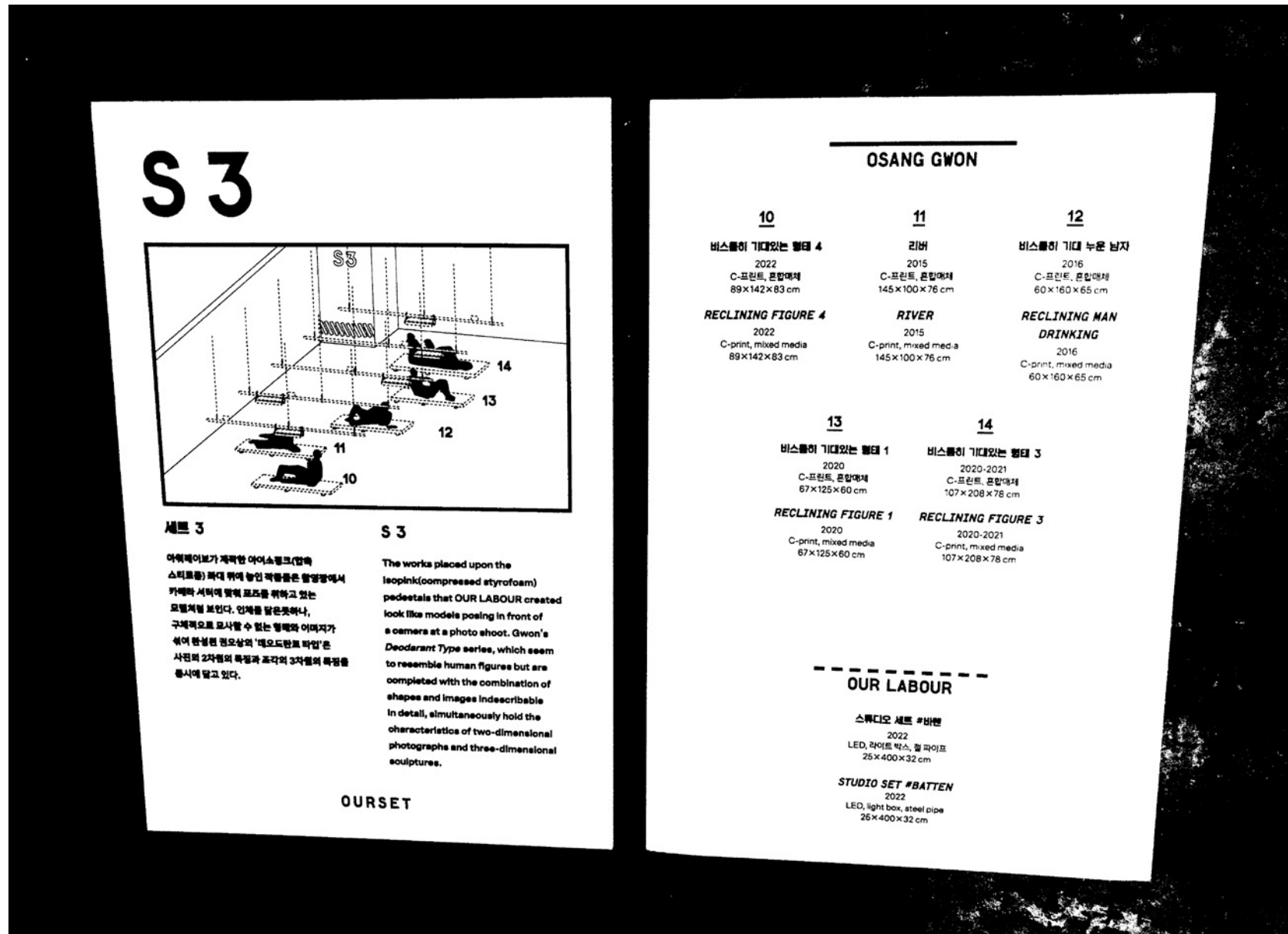
[아워레이보] 권오상 작가의 많은 작품이 사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세트장과 같은 연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와상> 시리즈는 일반적인 등신대 조각보다 시선의 초점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좌대를 만들어서 눈높이를 맞춰 설치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바닥에 내려서 더 내려다보는 구조로 연출하면 관람객에게 시선의 높이가 새롭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죠. 그래서 낮은 좌대와 바 형태의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좌대의 소재로 사용한 아이소핑크는 사진 조각에서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와상> 작업 중 헨리 무어의 작업에서 따온 작품들이 있어 헨리 무어의 작품이 놓이는 좌대처럼 낮고 넓은 형태의 좌대를 제작했습니다.

[권오상] <와상> 시리즈는 제 조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초기의 <와상>들은 <데오도란트 타입>의 제작이 정교해지고 사실적인 형태를 만드는 능력이 극대화되었을 때 제작했어요. 최근 제작된 추상적인 작품들은 지지체를 실제 인체와 다르게 변형했어요. 헨리 무어의 초상 조각을 차용하여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들로 제작하였습니다. 좀 더 추상적으로 보이고, 실제 인물과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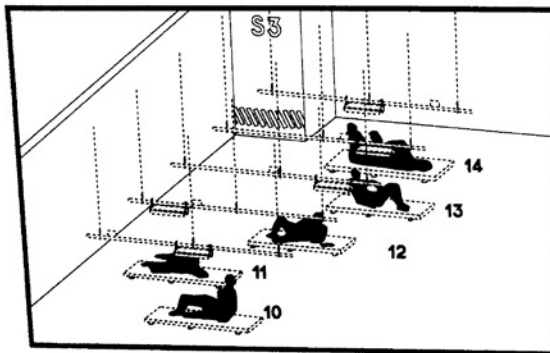
S 3

[OURLABOUR] Since many of Osang Gwon's works started from photography, we thought that it would be nice to create a sort of set. In the *Reclining Figure* series, the focus of the gaze is set lower than that of a typical life-sized sculpture. We thought that making a pedestal and installing the works at eye-level, or placing the works on the floor to make the viewers look further downward would enable them to newly realize the level of gaze. So we installed low pedestals and bar shaped lights. To use Isopink for the pedestals came from the idea that they are what shapes Gwon's photography-sculptures. And some of the reclining works were derived from those of Henry Moore's, so like the pedestal of Moore's works we created low and wide shaped ones.

[OSANG GWON] *The Reclining Figure* series are works where you can feel change in my sculptures. The early *Reclining Figures* were created when my ability to produce *Deodorant Types* in a sophisticated and realistic form was maximized. I have altered the support differently from the real human body in the recently made abstract works. The form is similar to the shape appropriated from Henry Moore's portrait sculpture, and created from photos searched on the Internet. I believe that the work has become to look more abstract and enable the viewers to feel the difference from the real person. So I think that there are more areas where the viewers can show their imagination.



S 3



세트 3

아워레이보가 제작한 아이소핑크(압축 스티로폼) 좌대 위에 놓인 작품들은 촬영장에서 카메라 셔터에 맞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처럼 보인다. 인체를 담은듯하나, 구체적인 묘사할 수 없는 형태와 이미지가 섞여 완성된 권오상의 '데오도란트 타입'은 사진의 2차원의 특징과 조각의 3차원의 특징을 동시에 담고 있다.

S 3

The works placed upon the Isopink(compressed styrofoam) pedestals that OUR LABOUR created look like models posing in front of a camera at a photo shoot. Gwon's *Deodorant Type* series, which seem to resemble human figures but are completed with the combination of shapes and images indescribable in detail, simultaneously hold the characteristics of two-dimensional photographs and three-dimensional sculptures.

OURSET

OSANG GWON

- | | | |
|---|---|---|
| 10 | 11 | 12 |
| 비스틀이 기대있는 형태 4
2022
C-프린트, 혼합매체
89×142×83 cm | 리버
2015
C-프린트, 혼합매체
145×100×76 cm | 비스틀이 기대 누운 남자
2016
C-프린트, 혼합매체
60×160×65 cm |
| RECLINING FIGURE 4
2022
C-print, mixed media
89×142×83 cm | RIVER
2015
C-print, mixed media
145×100×76 cm | RECLINING MAN DRINKING
2016
C-print, mixed media
60×160×65 cm |

13

비스틀이 기대있는 형태 1
2020
C-프린트, 혼합매체
67×125×60 cm

RECLINING FIGURE 1
2020
C-print, mixed media
67×125×60 cm

14

비스틀이 기대있는 형태 3
2020-2021
C-프린트, 혼합매체
107×208×78 cm

RECLINING FIGURE 3
2020-2021
C-print, mixed media
107×208×78 cm

OUR LABOUR

스튜디오 세트 #바텐
2022
LED, 라이트 박스, 철 파이프
26×400×32 cm

STUDIO SET #BATTEN
2022
LED, light box, steel pipe
26×400×32 cm



1

2

3

4

S3

S4

S5

S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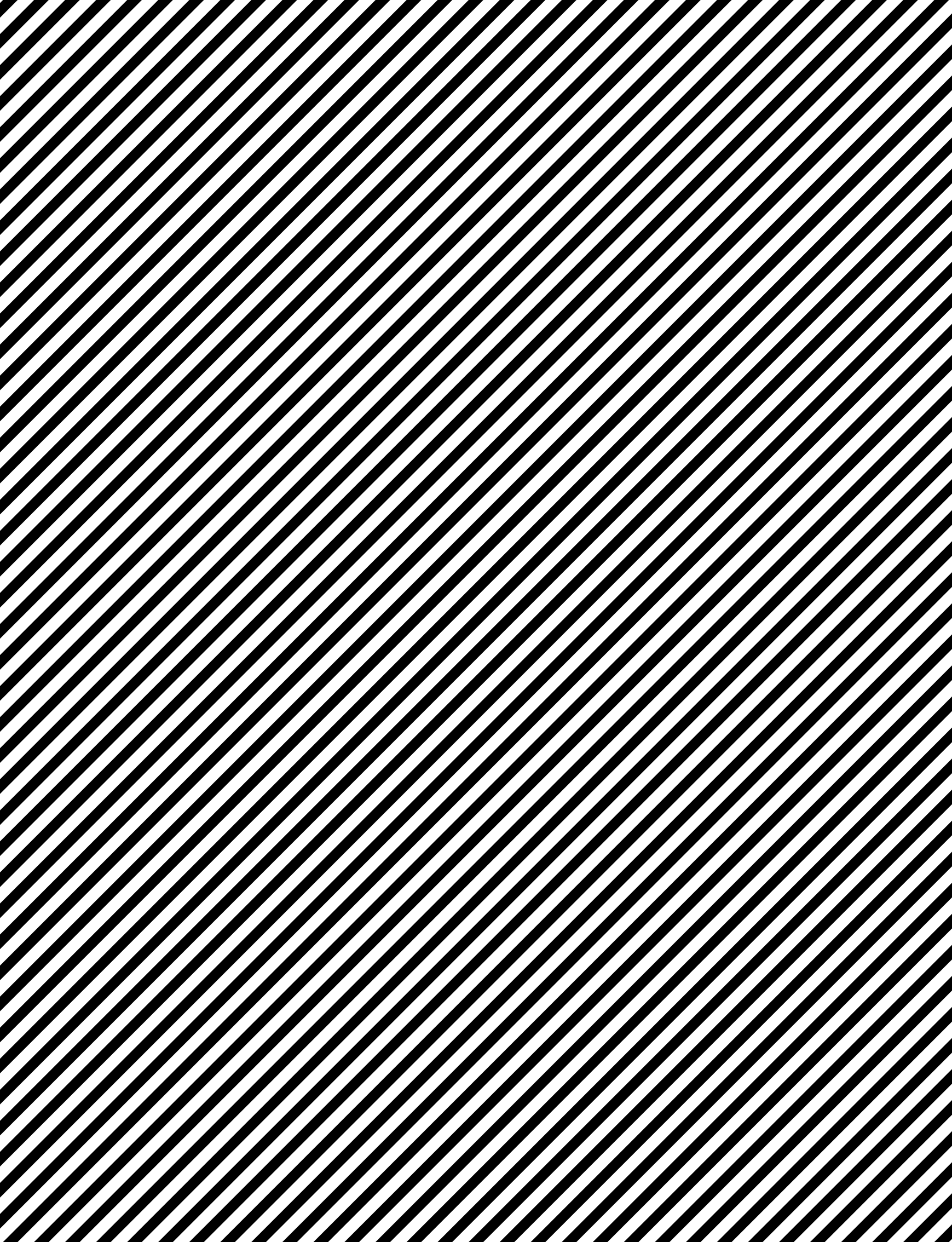












S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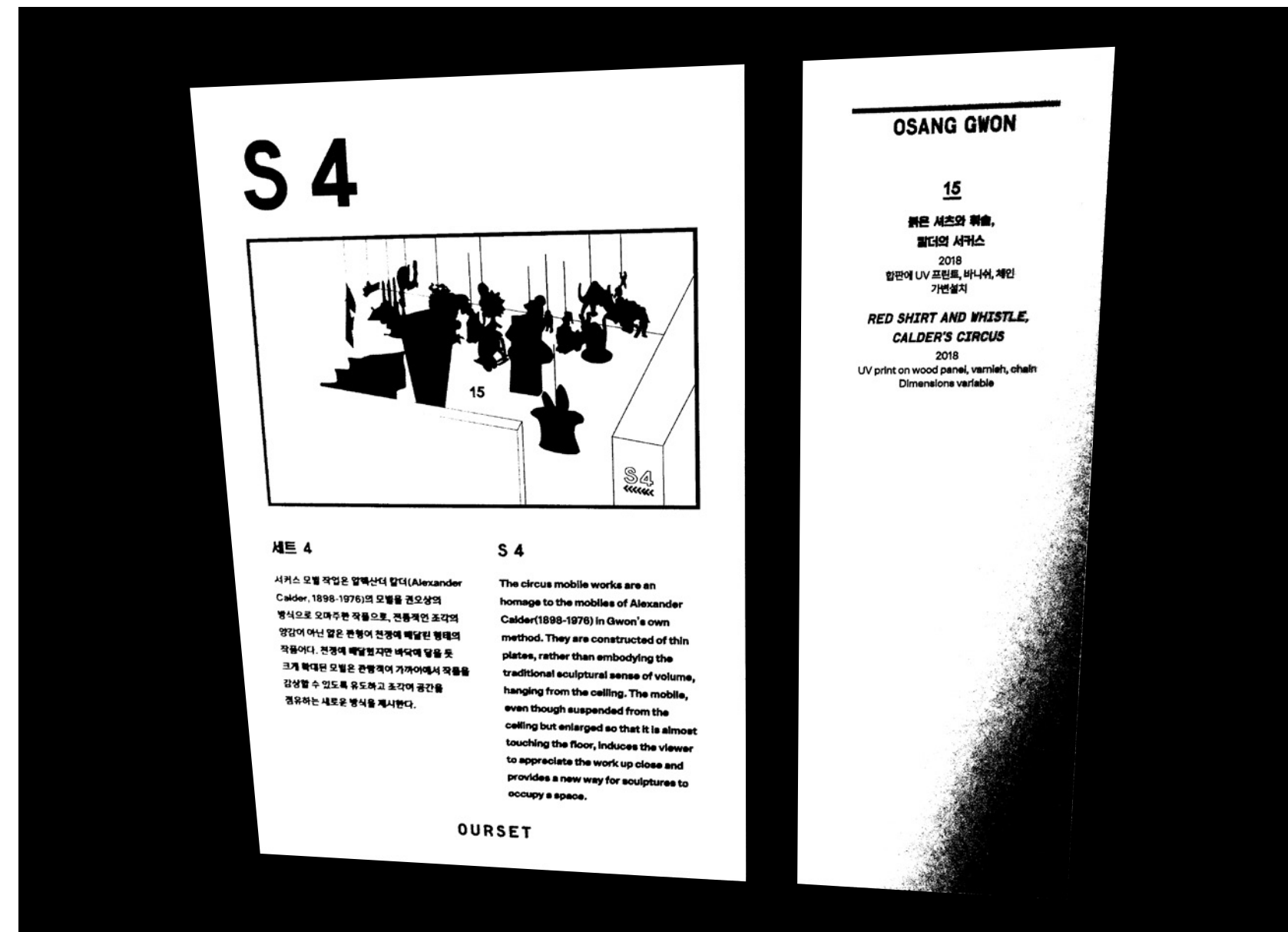
OUR SET

[권오상] '뉴 스트럭처' 시리즈의 모바일 작업은 알렉산더 칼더의 '서커스'에서 착안한 작품이에요. '칼더의 서커스'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하여 이미지를 수집했는데, 검색했을 때 칼더 작품이 포함된 이미지도 찾을 수 있었지만 다른 서커스의 이미지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수집한 이미지를 제가 즉흥적으로 조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늘어뜨린 형태로 배치했을 때, 관람객이 작품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공간을 관람객이 거닐면서 이미지의 정원을 느끼고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S 4

[OSANG GWON] The mobile works of *the New Structure* series were inspired by Alexander Calder's work *Circus* created from his sketches and line drawings. I collected images by searching the words 'Calder's Circus' on the Internet, and there were images of Calder's works in the search results but there were many other circus images as well. I spontaneously combined these collected images. And when placed to hang in a very low position, I thought that the viewers will be able to see the work a little closer. The work was installed in this space so that the viewers will be able to feel the garden of images while strolling and admire the work.

OUR LABOUR × OSANG GWON









S5

OUR SET

[아워레이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스튜디오에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조명을 생각했죠. 두 작품 중 한 작품은 공연장의 역동적인 느낌이 나는 <데오도란트 타입>이고, 또 다른 작업은 우주의 행성들을 모티브로 한 모빌입니다. 첫 번째 작품과 함께 설치된 조명은 록 페스티벌을 압축해 놓은 듯한 울동감이 넘치는 작품과 어울리는 조명을 제작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조명을 제작할 때 높낮이를 조정하고 반사판을 이용하여 비대칭의 형태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두 번째 조명은 우주 행성과 같은 형태의 모빌과 어떠한 형태가 어울릴까 고민하였고, 우주를 연상할 수 있는 형태를 많이 떠올려봤어요. 천체망원경이나 달 탐사선 같은 우주의 공간을 떠올릴 수 있는 형태를 차용하여 제작한 조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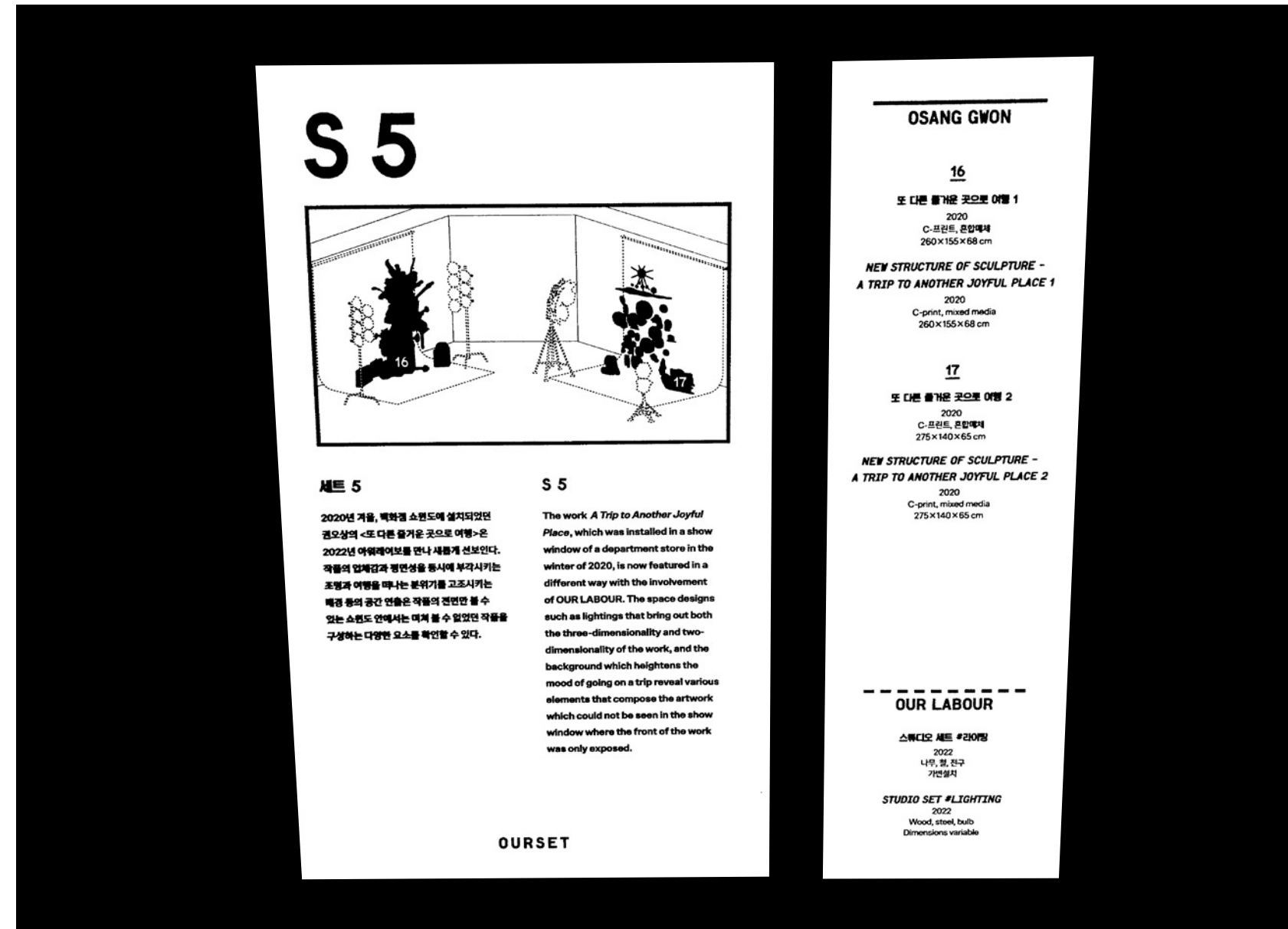
[권오상] 2020년 쇼윈도에 설치하고자 제작한 작품으로 굉장히 납작하게 압축된 형태로 설치되어 정면에서만 감상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측면에서 비스듬하게 작품을 볼 수 있고 아워레이보가 제작한 조명들이 작품을 비춰 그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을 못 가는 상황, 기타를 비롯한 악기 등을 통하여 연말 콘서트와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작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OURLABOUR] We started brainstorming, thinking about scenes of filming at a studio, and came up with lightings that can create an atmosphere in a studio. Of the two works, one is a *Deodorant Type* that arouses the dynamic mood of a performance arena, and the other is a mobile borrowing motif from planets in space. For the lightings to be installed with the first work, we thought about creating lights that will go well with the work that is full of rhythm like a compact rock festival. We maximized the autonomy by arranging them asymmetrically through adjusting the height and using reflectors when creating the lightings. For the second lightings we considered shapes reminiscent of outer space, contemplating on what kind of shape will match the form of the mobile that looks like planets. They are lightings created by borrowing from a form that can be connected to space such as an astronomical telescope or a lunar pr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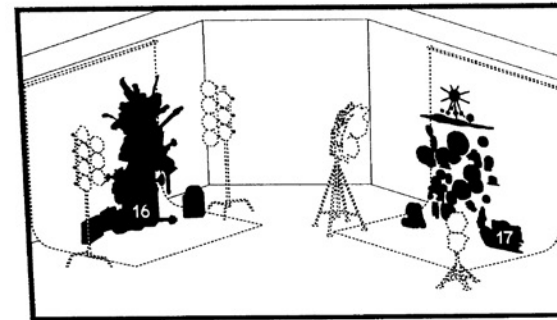
[OSANG GWON] This work was created to be installed in a show window in 2020. It was installed in a very flat and compressed manner so that it could be only viewed from the front. This time, you can view the work from the side askew, and due to the lightings by OURLABOUR illuminating the work, it became something totally different from before. As the title suggests, I thought of the situation of being unable to travel due to COVID 19, and the atmosphere of an end of the year concert through instruments such as guitars when making this work. So I thought about the unfulfilling parts of life, and since COVID 19 is not over yet I believe this work is still valid.

S 5

OURLABOUR × OSANG GWON



S 5



세트 5

2020년 겨울, 백화점 쇼윈도에 설치되었던 권오상의 <또 다른 즐거운 곳으로 여행>은 2022년 아워레이보를 만나 새롭게 선보인다. 작품의 입체감과 평면성을 동시에 부각시키는 조명과 여행을 떠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배경 등의 공간 연출은 작품의 전연면 볼 수 있는 쇼윈도 안에서는 대체 볼 수 없었던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S 5

The work *A Trip to Another Joyful Place*, which was installed in a show window of a department store in the winter of 2020, is now featured in a different way with the involvement of OURLABOUR. The space designs such as lightings that bring out both the three-dimensionality and two-dimensionality of the work, and the background which heightens the mood of going on a trip reveal various elements that compose the artwork which could not be seen in the show window where the front of the work was only exposed.

OURSET

OSANG GWON

16

또 다른 즐거운 곳으로 여행 1

2020
C-프린트, 혼합매체
260x155x68 cm

NEW STRUCTURE OF SCULPTURE - A TRIP TO ANOTHER JOYFUL PLACE 1

2020
C-print, mixed media
260x155x68 cm

17

또 다른 즐거운 곳으로 여행 2

2020
C-프린트, 혼합매체
275x140x65 cm

NEW STRUCTURE OF SCULPTURE - A TRIP TO ANOTHER JOYFUL PLACE 2

2020
C-print, mixed media
275x140x65 cm

OURLABOUR

스튜디오 세트 #라이팅

2022
나무, 철, 연구
가연물지

STUDIO SET #LIGHTING

2022
Wood, steel, bulb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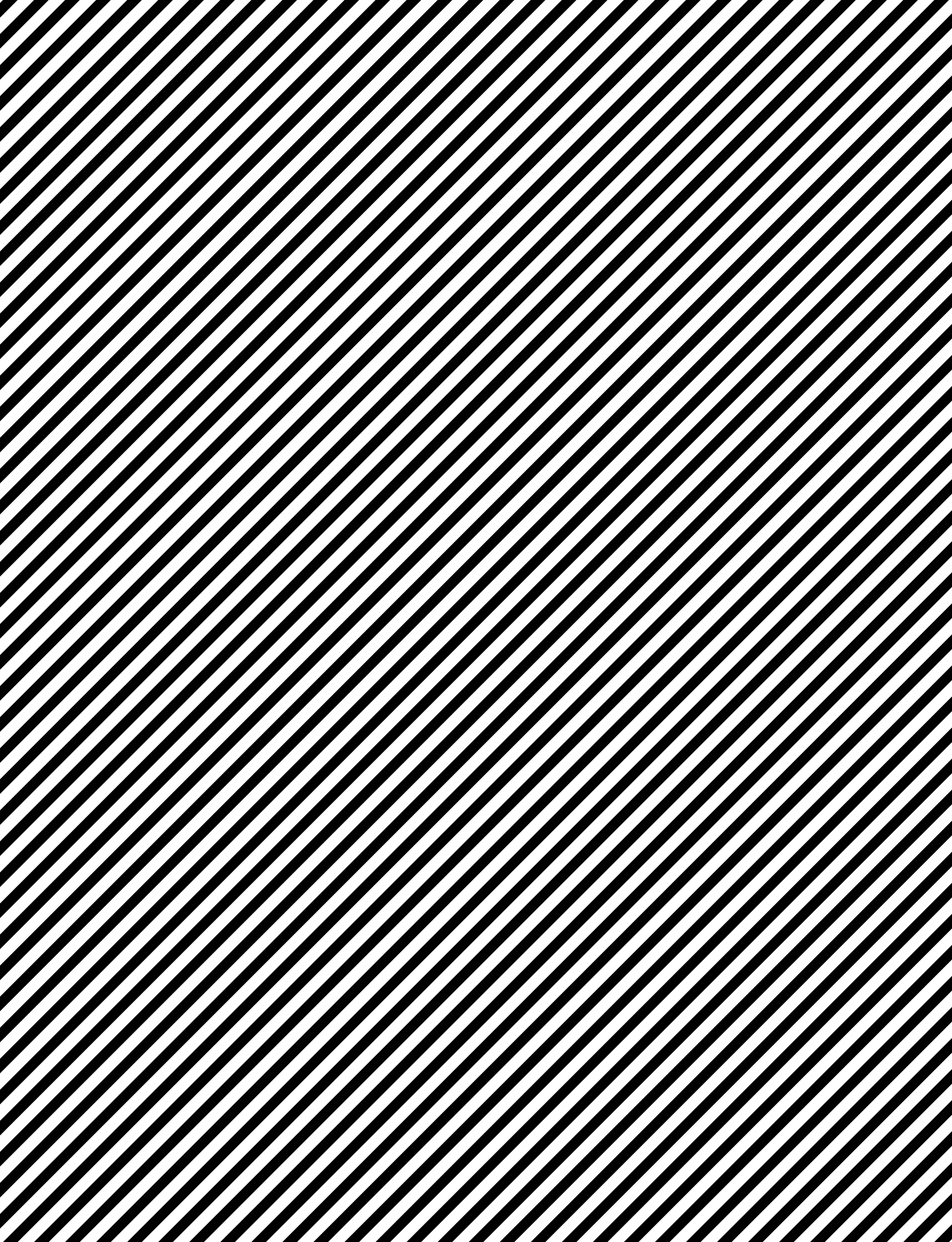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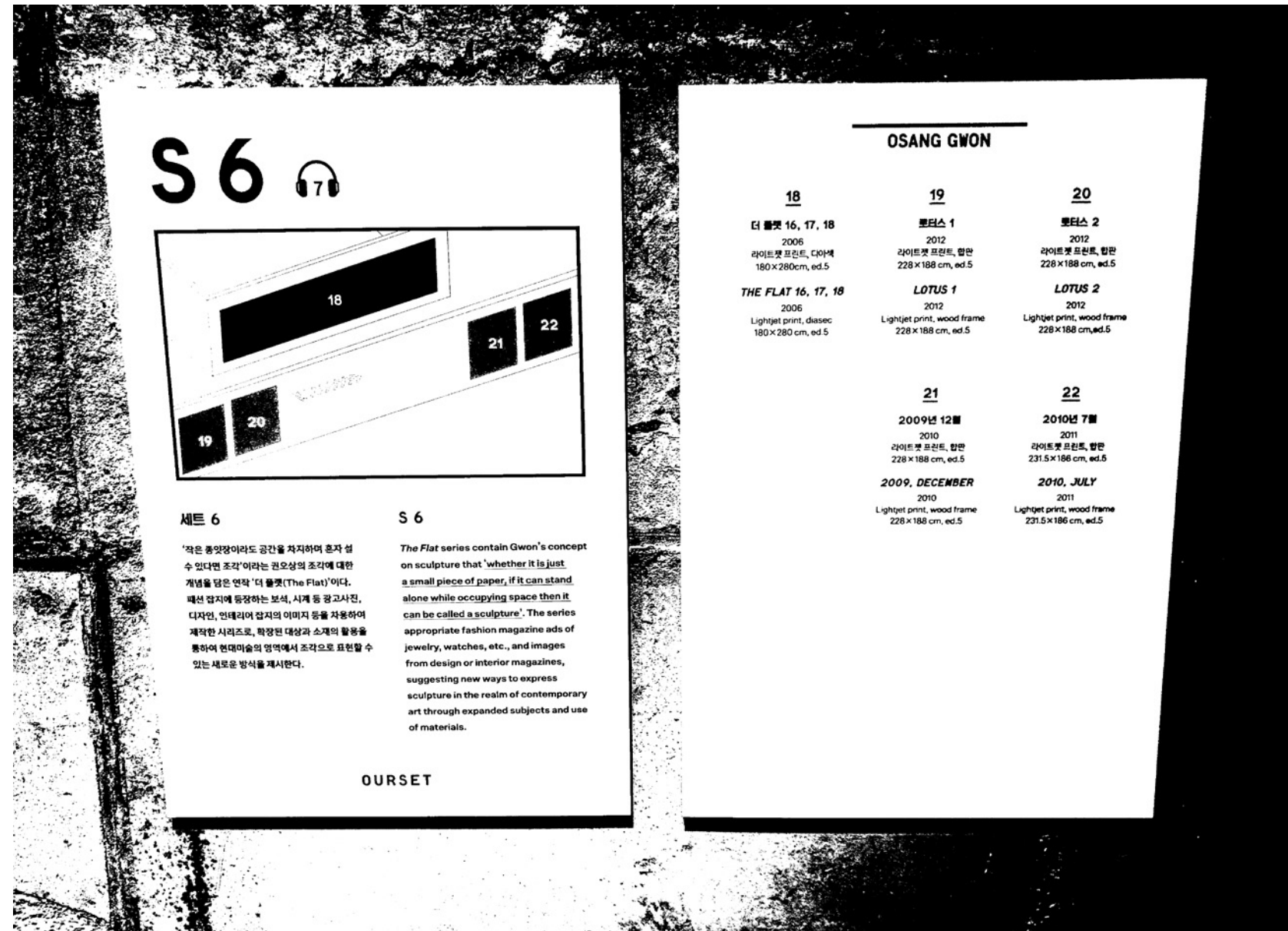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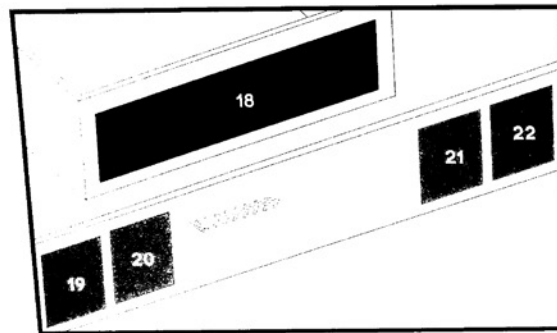
S6

[권오상] <더 플랫> 시리즈는 잡지에 등장하는 어떤 사물들을 칼로 오리고, 뒤에 철사를 붙여 세운 후 대형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으로 제안하는 작업입니다. 초창기 제작된 <더 플랫> 시리즈는 남성 잡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계들을 오렸고, 여성잡지로 넘어가서 보석들을 오렸어요. 이러한 사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데 광고되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늘어놓은 조각들의 풍경을 제안한 거죠. 그 이후에 <더 플랫> 시리즈는 잠시 중단되었고, 2010년 즈음 두 번째 <더 플랫>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이때는 잡지 한 권을 통째로 오려서 하나의 화면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월페이퍼』라는 잡지에 주목했습니다. 잡지에는 그달에 사람의 손으로 창조한 가장 그럴싸한 사물들이 모여있었어요. 그래서 정물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놨을 때 훌륭한 예술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OSANG GWON] *The Flat* series are works presented as photographs by cutting out objects appearing in magazines with a knife, attaching wires to the back so they can stand up, and shooting them with a large camera. The early *the Flat* series were of cutouts of watches which appear the most in men's magazines, and then I moved on to women's magazines and cutout jewelry. There are not many people that can afford these things, but it was interesting to see them being advertised. So I presented a scenery of scattered sculptures. Afterwards, I briefly stopped making *the Flat* series, and began to create a second version in around 2010. This time I created a single frame cutting out a whole magazine. At that time, I focused on the magazine *Wallpaper*. In the magazine there were a collection of the most convincing objects created by hand of that month. So I worked while thinking when gathering what could be called still life sculptures all together, could it be a great artwork?



S 6



세트 6

'작은 종이장이라도 공간을 차지하며 혼자 설 수 있다면 조각'이라는 권오상의 조각에 대한 개념을 담은 연작 '더 플랫(The Flat)'이다. 패션 잡지에 등장하는 보석, 시계 등 광고사진, 디자인, 인테리어 잡지의 이미지 등을 차용하여 제작한 시리즈로, 확장된 대상과 소재의 활용을 통하여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S 6

The Flat series contain Gwon's concept on sculpture that 'whether it is just a small piece of paper, if it can stand alone while occupying space then it can be called a sculpture'. The series appropriate fashion magazine ads of jewelry, watches, etc., and images from design or interior magazines, suggesting new ways to express sculpture in the realm of contemporary art through expanded subjects and use of materials.

OURSET

OSANG GWON

18 더 플랫 16, 17, 18 2006 라이트젯 프린트, 디아섹 180×280cm, ed.5	19 로터스 1 2012 라이트젯 프린트, 합판 228×188cm, ed.5	20 로터스 2 2012 라이트젯 프린트, 합판 228×188cm, ed.5
THE FLAT 16, 17, 18 2006 Lightjet print, diasec 180×280cm, ed.5	LOTUS 1 2012 Lightjet print, wood frame 228×188cm, ed.5	LOTUS 2 2012 Lightjet print, wood frame 228×188cm, ed.5
21 2009년 12월 2010 라이트젯 프린트, 합판 228×188cm, ed.5	22 2010년 7월 2011 라이트젯 프린트, 합판 231.5×186cm, ed.5	
2009, DECEMBER 2010 Lightjet print, wood frame 228×188cm, ed.5	2010, JULY 2011 Lightjet print, wood frame 231.5×186cm, ed.5	









S7



OUR SET

[아워레이보] 처음 <뉴 스트럭처> 시리즈를 보았을 때 작업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구조적으로 멋있고 작품이 가진 이미지가 너무 짓궂고 재미있기도 하고 신나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형태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연출 방식을 고민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권오상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의 하나인 배경을 지우는 거였어요. 보여주고 싶은 형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소거된 배경 안에서 보여주고자 크로마키 촬영장처럼 설정했습니다. 짓궂고 재미있는 이미지들로 구성된 이 작업에 어울리도록 배경을 형광 연두로 지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빨간색 테이프를 벽면에 붙여서 연출하였습니다.

[권오상] 2003, 2004년에 <더 플랫> 시리즈를 진행할 때 왜 작품 속 오려진 조각들은 전시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는 전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시하지 않았고, 2014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죠. <더 플랫>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판처럼 서서 작품이 된 거죠. 이것이 <뉴 스트럭처> 시리즈이고, 이 시리즈의 원전은 모두 칼더의 스태빌(stabile)이라는 작업에서 시작되었고, 구성도 스태빌과 같습니다.

S 7

[OURLABOUR] When first seeing the *New Structure* series, the works themselves were very interesting. They were structurally cool, the image that the works hold were very mischievous, fun and seemed to create an exciting atmosphere. So we thought about how to properly show off this form. We came up with the idea to erase the background, one of the methods Osang Gwon uses the most in his works. We made the space like a chroma-key film set so that the shape could be observed better by showing it with a removed background. The backdrop was designated a neon green color with red tape attached to the walls for focus, so it will go well with the works composed of mischievous and funny images.

[OSANG GWON] When producing *the Flat* series in 2003 and 2004, I was frequently asked why I did not exhibit the cut-out pieces in the work. At that time I did not show them because it was not the presentation method I had in mind, and in 2014 I came up with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e images from *the Flat* would stand like panels and become a work of art. This is *the New Structure* series, and originate from Calder's work called stabiles. The composition is like the stabile al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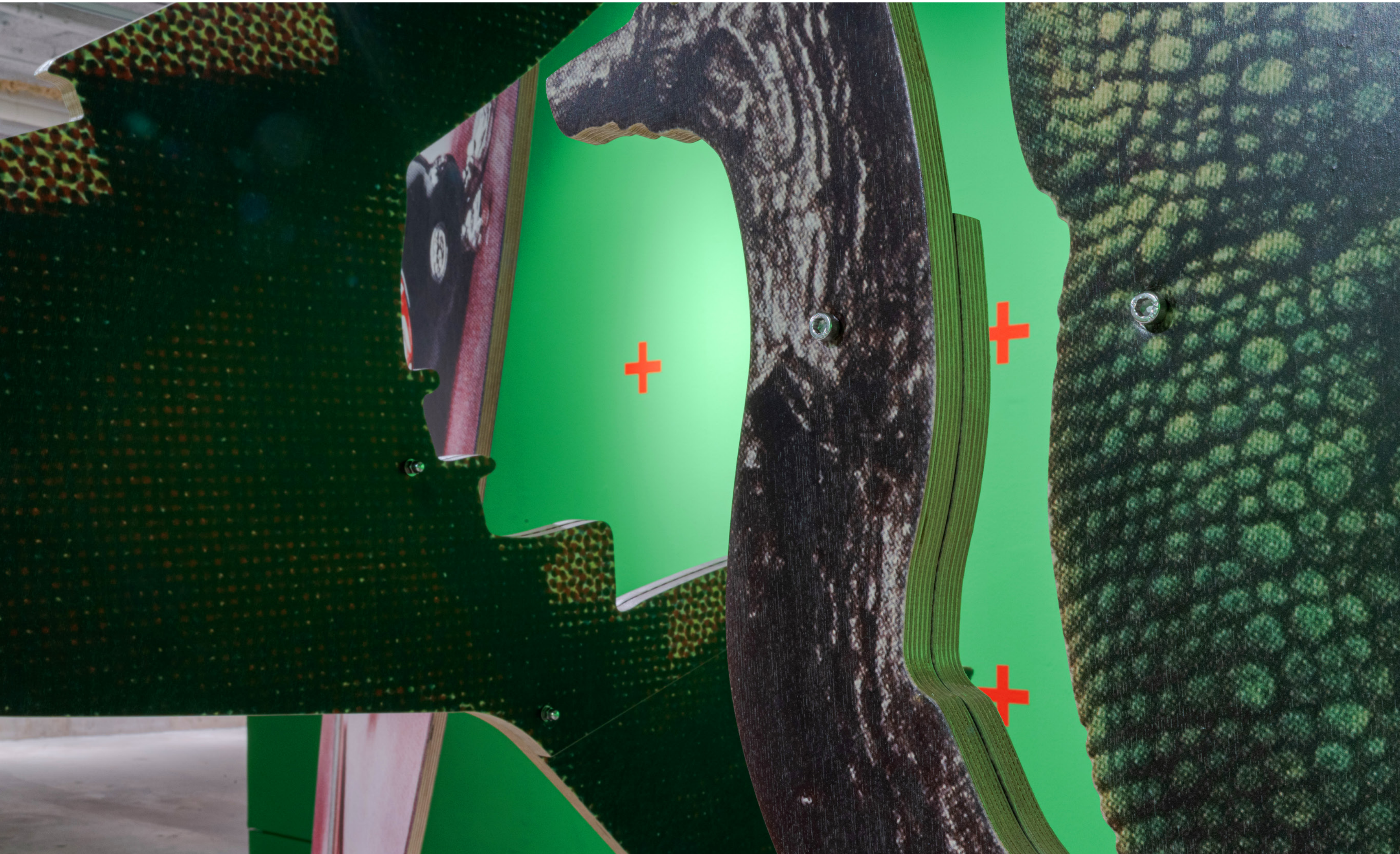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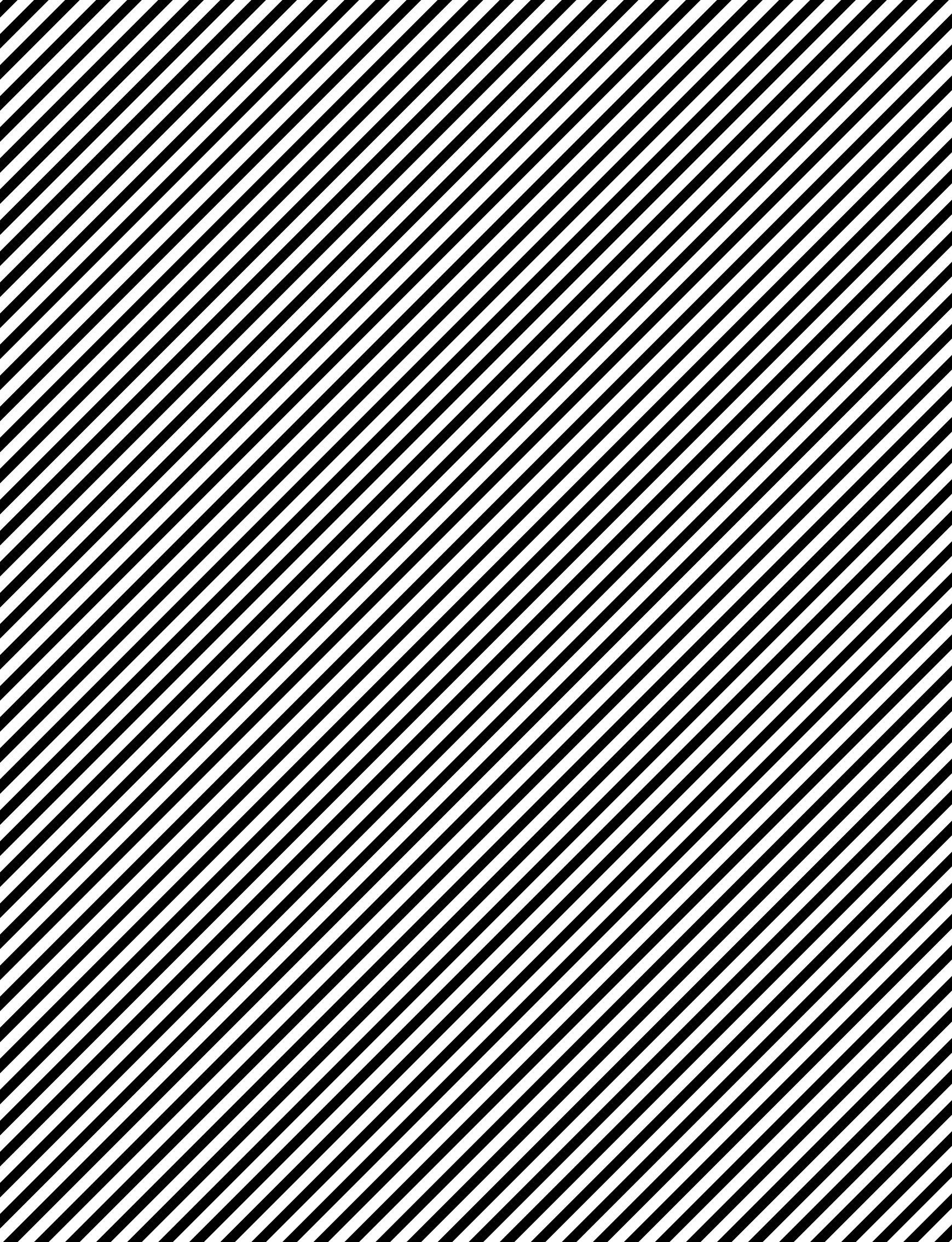












S8

OUR SET

[아워레이보] <스몰 스킵처>의 많은 미니카는 원형의 자동차 출고 타워의 구조물을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타워형의 구조물은 안쪽에서도 볼 수 있고 바깥쪽에서도 볼 수 있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엄청난 디테일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조명을 설치했어요. 자동차 도장 부스에서 미세한 먼지까지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조명을 타워 구조물 둘레에 설치하여 작품의 작은 디테일까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오상] 손에 쥌 수 있는 크기의 조각을 만들고자 제작한 시리즈가 <스몰 스킵처>입니다. 처음에는 수집했던 미니어처 자동차를 보고 제작하였고, 일부 작품은 검색한 이미지를 보고 제작했죠. 주로 르망 24시 경기에 나온 자동차를 1/43 크기로 줄여서 만들었어요. 르망에 경기에 나오는 자동차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굉장히 납작하고 넓은 돌을 닮은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S 8

[OURLABOUR] The many minicars of *Small Sculpture* are installed in a circular car tower structure that we created. The tower-like structure can be seen from the inside and outside, so we thought that it will be very effective. And the artworks hold great detail so we installed lightings for them to be observed better. Lightings, used at an automotive paint booth so even the tiniest dust particle could be seen, are installed around the tower structure so that the smallest detail of the artwork could be viewed.

[OSANG GWON] *The Small Sculpture* series were created to make a sculpture of a size that could be held in the hand. At first they were made from the miniature cars that I collected, and some were made from the images that I searched. Most were made by reducing the cars driven in the 24 Hours of Le Mans to the ratio of 1/43. The cars in Le Mans are not complex and simple like ordinary cars, and I thought they looked like very flat and wide stones.

OURLABOUR × OSANG GWON

S 8



세트 8

타워형 구조물 안에 자리한 미니카 99대는 마치 자동차 회사의 출고 타워에 놓인 모습을 연상시킨다. 손에 쥐고 감상할 수 있는 조각을 만들고자 제작된 연작 '스몰 스킵처(Small Sculpture)'는 세계 3대 레이스 중 하나인 '르망 24시간 레이스'에 등장하는 차를 약 1/43 정도의 비율로 축소한 것이다. 자동차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차체에 부착된 광고가 돋보이는 작품은 강한 조명에 반사되는 빛으로 그 매력적인 면모를 더한다.

S 8

The 99 model cars placed inside the oval shaped structure are reminiscent of those at a car tower of an automobile company. The *Small Sculpture* series, created so that sculptures could be viewed while held in the hand, are derived from cars driven in the '24 Hours of Le Mans', one of the top 3 sports car races of the world, reduced to the ratio of approximately 1/43. The modern design of the cars as well as the ads attached to the body stand out, and the surface reflecting the strong lights adds to the attractiveness of the works.

OSANG GWON

24

스몰 스킵처
2017-2021
레진에 아크릴
3.4x8x14.5cm, 98pcs

SMALL SCULPTURE
2017-2021
Acrylic on resin
3.4x8x14.5cm, 98pcs

OUR LAB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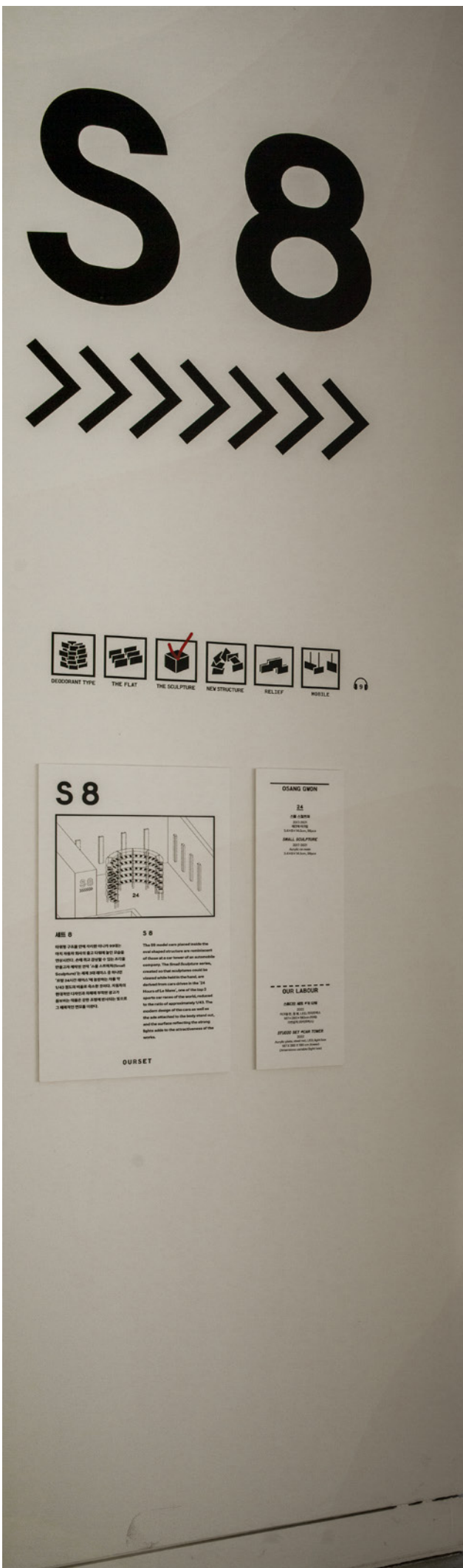
스튜디오 세트 #카 타워
2022
아크릴 판, 철 봉, LED, 라이트박스
187x260x180cm (타워)
가변설치 (라이트박스)

STUDIO SET #CAR TOWER
2022
Acrylic plate, steel rod, LED, light box
187 X 260 X 180 cm (tower)
Dimensions variable (light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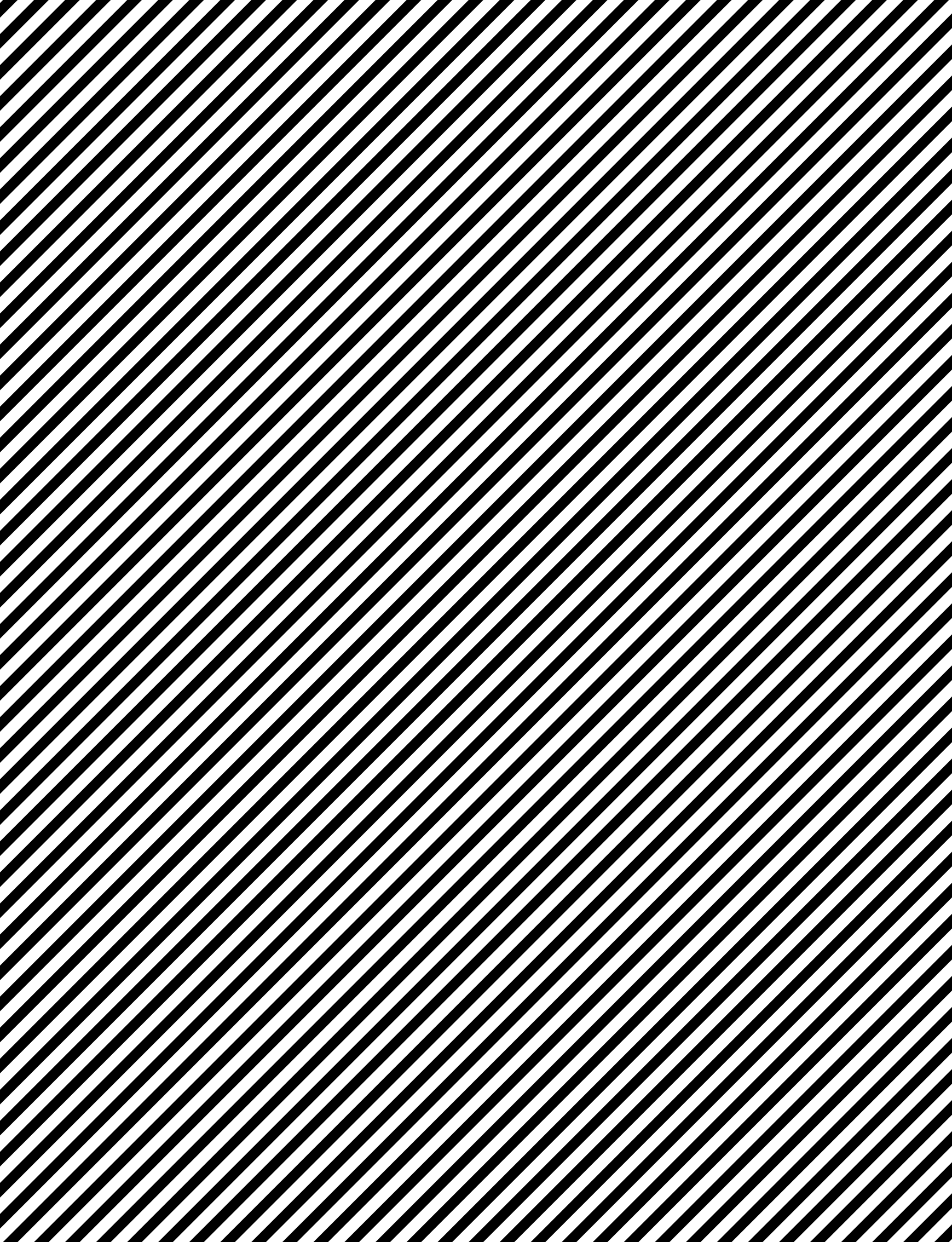
OURSET











S9

OUR SET

[아워레이보] 권오상 작가의 작업을 생각했을 때 다중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를 콜라주 하거나 엮는 방식으로 중첩하는 <릴리프> 시리즈를 보여주기 적합한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공간 안에서 다중 프레임의 성격을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일반적인 평면 공간 안에 착시라는 효과를 쓰면 2D의 평면적인 공간이 3D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간 자체가 분절돼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살짝 일렁거리기도 하는 느낌이 실제 다중 프레임 작업인 <릴리프> 시리즈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권오상] <릴리프> 시리즈는 <뉴 스트럭처> 시리즈에 나온 판들을 포개서 벽에 걸 수 있는 부조를 만들 자고자 시작했습니다. <릴리프>도 <플랫> 시리즈의 이미지들로 시작되죠. <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묶음을 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이미지들을 늘어놓고 작품을 몇 개를 만들지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작품을 구성하죠.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크게 확대하거나 줄이고, 또는 색에 따라서 배치를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소조하듯 작업을 진행합니다.

S 9

[OURLABOUR] When thinking about Gwon's works, the use of multiple frames cannot be left out. We contemplated on suitable ways to show *the Relief* series which overlap images by collage or weaving them. We thought about how to integrate the traits of multiple frames in a space. In an ordinary flat space, when using the effects of optical illusion the flat two dimensional space looks three dimensional or as if the space itself is segmented. Also a slightly wobbly feeling seemed to go well with *the Relief* series which are actual multiple framed works.

[OSANG GWON] *The Relief* series started as an attempt to make reliefs that could be hung on the wall by using the panels of *the New Structure* series and overlapping them. *The Relief* series were started from *the Flat* series also. In the case of *the Relief* series, I take a bunch of images and lay them out using a computer, contemplating and deciding on how many works I should create out of them. After a decision is made in this manner, I compose the work. Also I enlarge or reduce the size, arrange the images by color on the computer and work very spontaneously as if modeling sculptures.

세트 9

무늬 없는 나무 판형 위에 이미지가 담긴 나무판을 쌓아 올리는 콜라주 같은 형태로 완성되는 '릴리프(Relief)' 연작을 선보인다. 서로 연결성이 없는 이미지를 중첩시켜 평면으로 완성된 작품은 노출 콘크리트의 벽면과 만나 또 다른 판형에 올려진 콜라주와 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S 9

The featured *Relief* series are completed in the form of a collage by stacking patternless wooden boards with printed images on them. The unrelated images mounted on top of each other are completed as two dimensional works, and the exposed concrete wall creates a unique atmosphere making the works look like a collage placed on another board.

OURSET

OSANG GWON

25 릴리프 13 2016 합판에 프린트, 비-이치 123x237x6 cm	26 릴리프 15 2016 합판에 프린트, 비-이치 175x120x6 cm	27 릴리프 22 2016 합판에 프린트, 비-이치 150x193x6.2 cm	28 릴리프 20 2017 합판에 프린트, 비-이치 201.5x115x3.8 cm
RELIEF 13 2016 Print on wood, varnish 123x237x6 cm	RELIEF 15 2016 Print on wood, varnish 175x120x6 cm	RELIEF 22 2016 Print on wood, varnish 150x193x6.2 cm	RELIEF 20 2016 Print on wood, varnish 201.5x115x3.8 cm
29 릴리프 23 2016 합판에 프린트, 비-이치 182x207.5x5.4 cm	30 릴리프 27 2017 합판에 프린트, 비-이치 134x175x3 cm	31 릴리프 26 2016 합판에 프린트, 비-이치 158x155x6 cm	32 릴리프 3 2016 합판에 프린트 147x198.7x6 cm
RELIEF 23 2016 Print on wood, varnish 182x207.5x5.4 cm	RELIEF 27 2017 Print on wood, varnish 134x175x3 cm	RELIEF 26 2016 Print on wood, varnish 158x155x6 cm	RELIEF 3 2016 Print on wood 147x198.7x6 cm
33 릴리프 9 2016 합판에 프린트 178x200x6 cm	34 뉴 스트럭처 15 2016 합판에 프린트 256x175x130 cm	35 뉴 스트럭처 13 DD 2016 합판에 프린트 205x305x170 cm	36 뉴 스트럭처 14 2016 합판에 프린트 227x290x268 cm
RELIEF 9 2016 Print on wood 178x200x6 cm	NEW STRUCTURE 15 2016 Print on wood 256x175x130 cm	NEW STRUCTURE 13 DD 2016 Print on wood 205x305x170 cm	NEW STRUCTURE 14 2016 Print on wood 227x290x268 cm

OURLABOUR

스튜디오 세트 #레이보 및
2022
스톡커
가변설치

STUDIO SET #OPTICAL DOT
2022
Stocker
Dimensions variable

S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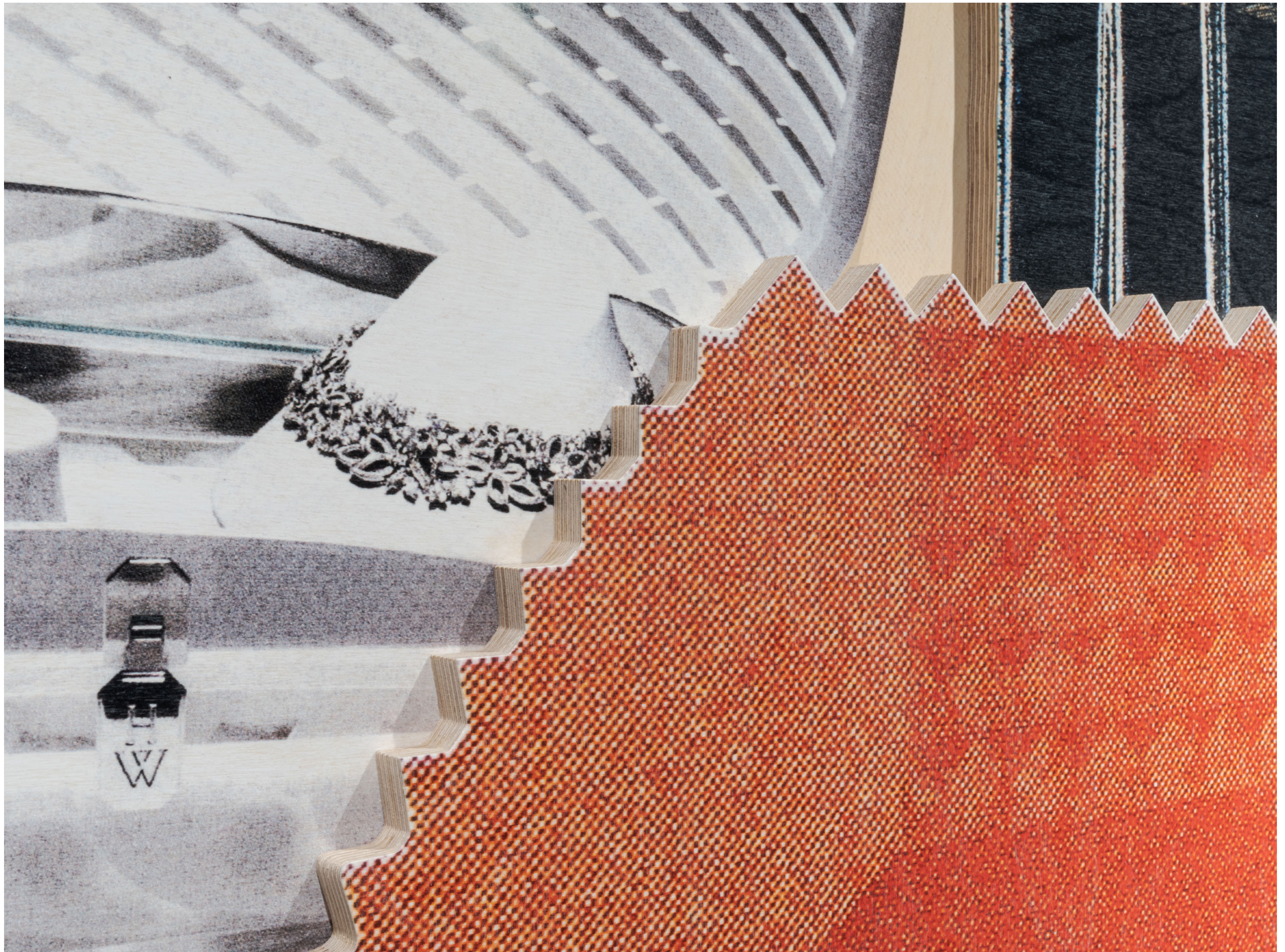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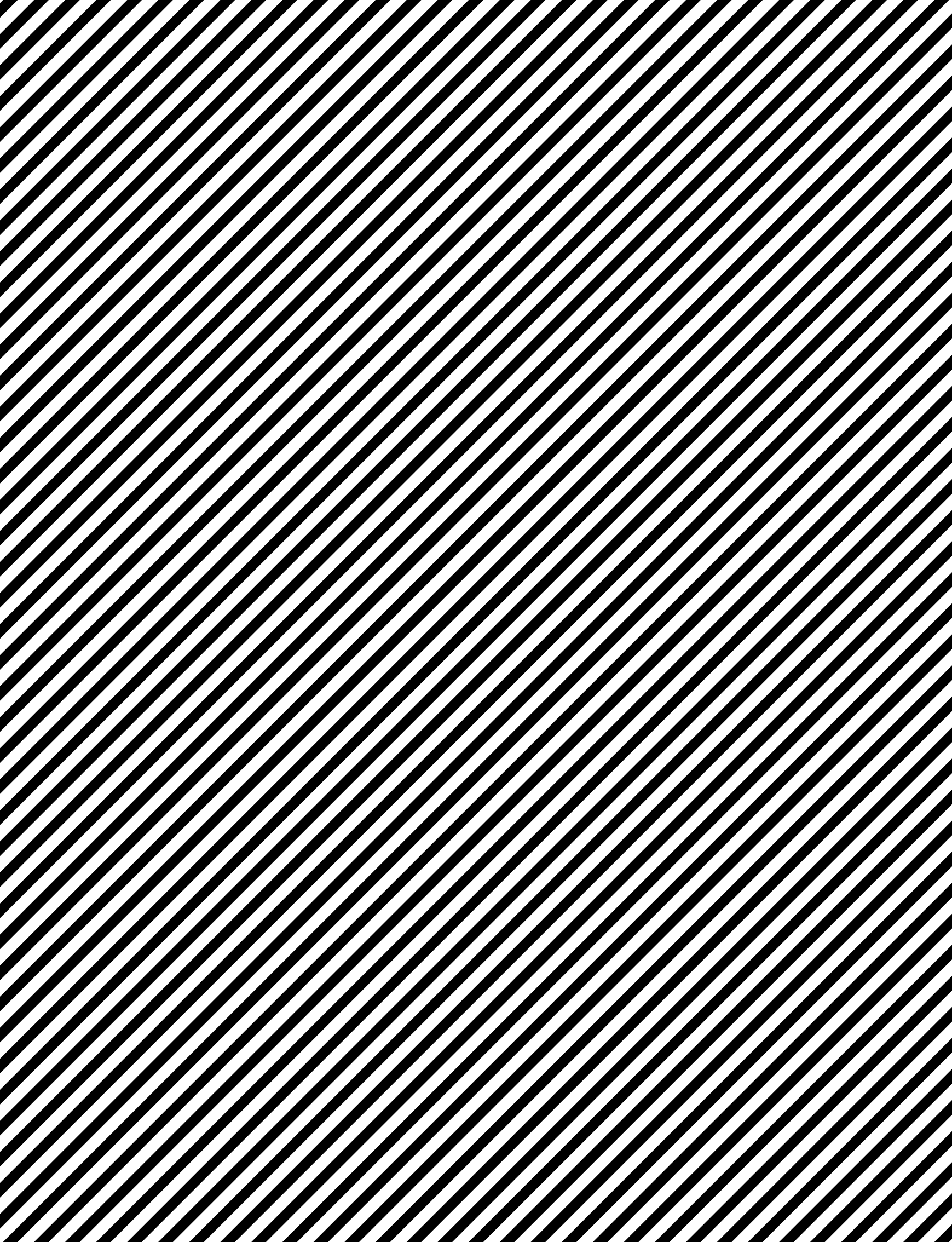












OUR SET

RENEWING THE RESOLUTION OF SCULPTURES

<div><div></div>아워세트: 조각의 해상도 갱신</div>
추성아

전시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Our Set: OURLABOUR × Osang Gwon)»은 권오상의 조각 전반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고할 수 있도록 아워레이보(OURLABOUR)가 새로운 공간적 해석에 도전한다. 권오상과 아워레이보는 협업(콜라보)의 형태로 기존 제도권 전시에서 통용되었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시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조각을 현재의 감각으로 갱신한다. 아워레이보는 온라인 유통이 확산된 오늘날의 실제적 경험과 소통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브랜드가 현대미술의 감각들을 참조하는 ‘콜라보(collaboration)’ 형식의 스토리텔링에 주목한다. 예컨대, 하이 퍼포먼스 슈퍼카 튜닝 브랜드인 피치스(Peaches)나 BMW,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 누데이크(NUDAKE) 등이 동시대 미술 혹은 힙합,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공간 마케팅은 브랜드의 가치를 교환한다. 이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서사적인 동시에 상품이 이미지로서 직관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상품(사물) 대신 경험과 가치라는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해왔다. 이들이 공간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소름 혹은 플래그십 스토어 개념의 오프라인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동시대 미술 작품에서의 주요 재료나 덩어리, 표면, 구조와 전시 형식을 참조한다.

이렇듯, 전시와 상업 영역의 결합이 곧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하고 추구하는 곳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생경한 문법으로 전환되어 소비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들의 커머셜 전략은 상품을 아름다운 사물과 동시대적인 감각의 작품을 전복시킴으로써,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선 브랜드의 가치, 개념, 태도 등의 관념적인 지점을 이미지 감각으로 전유한다. 반대로, 권오상과 아워레이보는 유사 맥락에 맞춰 제도권에서 생산되었던 조각 전시를 지양하고, 역으로 커머셜 공간-상품 브랜딩 어법을 차용한다. 그리하여 작가가 지난 이십 년간 실천했던 여러갈래의 조각 시리즈를 공간과 컨텐츠 개념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아워세트”라는 브랜딩 전략을 실현한다.

 [#세트1]	세트와 연출
----------------	--------

«아워세트»는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가치인 ‘세트(set)’라는 가짜/가상 환경의 일루전에서 조각의 ‘이미지화(imaging)’에 질문을 던진다. 전시는 상품 미학적 측면에서의 오브제, 즉 대상이 갖고 있는 물리적, 감각적 가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리테일(retail) 컨셉을 설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아워레이보가 차용한 패션 문화 전반의 기호나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에디토리얼 사진(editorial photograph)’의 환경과 장비 등의 공간 조성은 권오상의 조각을 새로운 언어로 연출한다. 전시 제목에서 ‘세트’의 개념을 전면으로 내세우듯이, 아워레이보의 역할은 연출 방향을 유연하게 설정하므로 가짜 환경을 통과한 권오상의 조각을 문화적 상징의 전달체로서 그 존재 방식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데 있다. 특정 장소 혹은 위치에 두는 배경(무대)을 설정하는 사전적 의미의 ‘세트’는, 장소와 공간적 성격을 구현하는 태도와 동시에 다수의 것을 엮는 ‘그룹’의 개념을 내포한다. 이를 바탕으로, 권오상과 아워레이보의 구체적인 소통 방식은 가장 물질적이고 화려한 사물을 다듬는 ‘로케이션’에 주목해 클라이언트와 사물(상품)의 관계가 필수적으로 작동하는 장소의 무대들을 설정하는데 있다. ‘연출’은 하나의 무대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연기, 장치, 의상, 분장, 조명, 소리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총체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아홉 개의 구역을 각각의 세트로 연출한 아워레이보는 전시를 통일하는 중심 축을 ‘세트’와 ‘조명’이라는 디자인의 영역을 소환하므로, 조각과 동등하면서 도드라진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의도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출의 태도는 작품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되는 암묵적인 규칙에 기반한다. 아워레이보의 개입은 소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권오상의 조각을 새로운 환경 위에 읽어낼 수 있도록 산업적인 컨셉의 공간과 사이니지의 기호적 맥락을 통해 영역을 분류한다. 이들은 공간의 빈약한 특성을 반영한 콘크리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지하 주차장 컨셉으로 중심을 잡고, 개별 영역마다 차량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을 적용, 분류한다. 공간은 간단하게 ‘ㄷ’자를 엮어 놓은 동선으로 S1(SET 1)의 <더 스텝프처(The Sculpture)>² 시리즈로 시작하여 <월

1					
'에디토리얼 사진'은 일반적으로 광고와 달리 인물, 패션쇼, 건축물과 같은 특정 주제/대상에 서사를 부여하여 정교하게 스토리텔링하는 기획 사진을 말한다.					

리프(Relief)와 <뉴 스트럭처(New Structure)>가 교차된 구역을 끝으로 S9까지 아홉 개의 영역을 다룬다. 시리즈 별로 분리된 개별 영역은 하이엔드 모터쇼의 액티베이션 존과 딜러, 자동차 도장 팩토리, 촬영 스튜디오, 분장실 등 쇼케이스로서의 장소와 상품을 공적 및 유통하는 특정 산업 생산 시스템의 환경과 장치를 설정한다. 이와 더불어, 연출과 조각의 위계를 의식적으로 무너뜨리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지지체만 남겨두고 주변적인 것들을 모두 소거한 방식은 연출의 보편적 개념을 새롭게 설정한다. 주지하듯, 상업적 이미지 연출 방식을 통과하는 권오상의 조각 시리즈는 현대미술의 언어가 완전하게 상실되지 않은 채 상품 미학을 상징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산업소비사회의 상품에 부여된 습득된 가치체계의 개입이 사물과 이미지의 통속화된 광고 전략을 의식적으로 따르면서, 예술 언어의 진부함 사이에서 동시대 조각 위에 필터를 입혔을 때 조각이 특정 미학의 독점성이 강조되는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세트2]	조명과 평면성
----------------	---------

아워레이보는 일관되게 조명(빛)이라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공간 전체에 다루는 전략을 취한다. 조명에 따라 대상의 전반적인 이미지의 분위기가 결정되듯이, 무대 위의 소도구는 공간적 서사를 상상하도록 조각의 주변을 둘러싼 배경이 된다. «아워세트»에서는 구조적 특성이 발휘된 조명 오브제가 공간적 서사를 부여하는 역할(S1, S3)과 벽에 붙은 부조(S2, S8)이자 직립하는 조각(S5)이 되기도 한다. 극의 전개에 따라 공연의 연출이 달라지듯이 각각의 유닛 안에서 시리즈마다 제작된 조명은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결정적으로, 조명은 조각적 특성을 역행하기 위해 조각을 감싸고 있는 사진 매체의 표면과 패턴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일조하며, 조각에서 드러나는 양감과 구조를 소거하는 평면적인 이미지로 갱신되도록 한다. 즉, 무대의 아날로그적 요소인 빛이 조각의 실체를 드러내는 현실감을 제거하면서도 표면의 감각들을 고르게 조명한다. 여기서 권오상의 사진 조각이라는 매체의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평면성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2003년부터 시작된 <더 플랫폼(The Flat)>³ 시리즈와 2016년부터 제작한 <릴리프>로 이어진다. 예로, 작가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잡지 광고의 명품 소비재 이미지를 오려내어 철사를 뒷면에 부착함으로써, 조각이 되기 위한 직립 조건을 부여함과 동시에 극단적인 평면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재촬영 한다. <더 플랫폼> 시리즈가 “건축, 미술, 디자인, 공예, 패션 등 인간이 만든 지구에 등장하는 가장 그럴싸한 근사한 것들”의 집합체인 매거진을 선택한 이미지 모음이라면, 이후에는 두툼한 목재 위에 개별 이미지가 전사되어 확대된 망점의 납작한 부조(릴리프)로 변환된다. 나아가, 교차된 조립 방식의 구조가 강조된 <뉴 스트럭처(New Structure)>는 <릴리프>로 다시 해체되면서 권오상의 조각적 방법론이 ‘표면-패턴-이미지-평면성’을 근간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플랫폼>, <릴리프>, <뉴 스트럭처>와 더불어 대표적인 <데오도란트 타임>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이미지 콜라주라는 표면과 덩어리의 착시와 왜곡이 따라온다. 사진 재료가 갖고 있는 산업 재료적 특성과 공간 연출에 사용되는 비물질과 물질의 관계는 질료와 형식의 문제를 커머셜 어법으로 해석한다. 이같은 관점은 아워레이보가 주요하게 다룬 조명 효과로 빛을 고르게 투사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 위에 있다. 빛을 반사하고 흡수하는 사진 매체 자체는 표면을 감각할 수 있는 껍데기였다가 지지체가 된다. 권오상 하면 따라왔던 ‘가벼운 조각’이라는 타이틀과 평면과 조각의 위계에 대한 비평이 지난 20여 년간 언급되면서, 조각적인 것들에 대한 작가의 질문은 평면성에 대한 이미지 감각의 갱신

2					
2005년부터 선보인 <더 스텝프처> 시리즈는 전통적인 조각의 대표성을 띠는 실물 크기의 람보르기니를 브론즈로 제작했다가 점차 압축 스타로폼과 점토를 이용하여 특정 슈퍼카를 재현하는 조각의 사물화에 대한 태도를 표방한다. 작가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엔초 페라리, 부가티 베이론 외에 듀카티 등 주로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와 모터사이클을 다뤘다.					
3					
S6 구역에 설치된 <더 플랫폼 16, 17, 18>(2006)은 시리즈의 1차 시기에 제작된 작업으로 디아백 세 점이 연결된 9미터의 사진 이미지다. 이 작품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국 럭셔리 잡지에서 광고된 모든 보석 이미지들을 오린 것으로, 해당 작품 맞은 편에 설치된 나무 액자 네 점은 2차 시기의 2010-2012년 사이에 제작되었다. 이는 슈퍼카 로터스(Lotus)의 연대기적인 이미지들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잡지 “월페이퍼(Wallpaper)” 한 권을 골라 다양한 분야가 선도했던 이미지의 시대상을 표방했다.					

을 시도한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원본 이미지를 가공하여 뽀사시하게 편집 및 보정하여 낯설게 왜곡시키는 ‘야시피케이션(yassification)’⁴의 이미지 소비 시대 흐름 안에 편입되는 조각을 시사한다. 주로 ‘셀피 이미지’에 적용된 해당 용어는 공간적 연출로 편입되어 사실성에 기반한 일루전이라는 점에서 기억의 미화 혹은 수정적 관점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발광 기능보다 대상을 고르게 보여주는 메이크 라이트와 투명한 디퓨저가 달린 조명의 수직, 수평은 ‘뽀사시’함을 강조하기 위해 대상을 더욱 평면적으로 둔갑시켜 보정 행위에 일조한다. 즉, 보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명은 또 다른 왜곡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각 표면의 질감과 패턴이 조각 우위에 있는 착시를 초래하게 되는 평면성과 일루전의 상황극 위에 권오상의 조각을 던져 놓는다.

 [#세트3]	스케일과 해상도의 박제
----------------	--------------

권오상의 조각적 실천을 총망라한 여섯 개의 시리즈는, 아홉 개의 구역에서 연대기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조각에서 파생된 외적인 요소들을 교차시켜 그 관계성을 유동적으로 환기시킨다. 그의 조각 시리즈는 기존 전시 문법에서 전통 조각에 쓰이는 재료였던 흙, 나무, 청동, 알루미늄, 석고 등의 물질을 넘어선 재료적 속성에 대한 비평과 조각의 질감, 부피, 구조, 공간감을 논해왔다. 그러나 <아워세트>에서는 사진의 이미지 자체가 몸체를 획득하게 되면서, 상업적인 공간 연출의 개입으로 새로운 공간성에 확보된 이미지 환영의 유사 감각들을 엮는데 일조한다. 조각사 전반을 참조하고 있는 권오상이 조각의 존립 자체가 대상 내부의 독자성에 기인한 ‘직립’이라는 형태를 의식적으로 다루어 왔다면, 이번 전시는 공적 영역의 외적인 요소에 편입된 조각이 물리적인 관점을 초월한 이미지 감각으로 박제된 시간성에 초점을 둔다. 독특하게도 앞서 언급한 조명의 역할은 조각을 그대로 정지시켜 놓은 듯한 무결점의 진공 환경을 구축한다. 역설적이게도, 빛이 고르게 퍼진 무결점의 진공 환경은 입체의 직립이 부각되는 이중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오상의 조각에서 과거-현재로부터의 끝없는 갱신을 시도하려는 ‘동시대성’은 꽤나 설득력 있다. 여기에 크게 출력된 이미지와 점토의 질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가의 조각에서 조명의 커머셜 및 소셜 미디어적 연출에 의해 ‘해상도’ 개념의 새로운 척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화면 혹은 인쇄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해상도는 픽셀 수, 화소 수, 선명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근래까지 그의 조각에서 인쇄된 인화지의 해상도는 각각의 시간적 좌표 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와 사회적 관점, 나아가 자본주의의 시대상을 조각 위에 박제한다. 해상도의 밀도가 높으면 화소 수가 밀집되어 고화질의 스크린이 되는 것처럼, 저해상도는 밀려나 아홉 개의 영역 안에서 밀집과 분산된 시리즈를 구분하므로 저해상도와 고해상도의 조각이 공존하게 된다. 예컨대, 유사 시리즈 사이에서 해상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S1에서 휴먼 스케일의 엔초 페라리(Enzo Ferrari)와 부가티 베이론(Bugatti Veryron)의 육중한 <더 스텝프처>는 자본주의 구조가 짙은 포퓰러의 연출 어법 위에 전시되었다. 두 점의 거대한 조각은 점토와 아크릴 물감의 둔탁한 질감이 부각되면서 해상도를 역행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공간 연출과 함께 이미지 고해상도를 취득하게 된다. 반면에, S8에 배치된 <더 스텝프처>의 축소 판이자 다이캐스트(die-cast) 모형⁵을 표방한 아흔 아홉 점의 르망24(The 24 Hours of Le Mans)⁶ 슈퍼카 <스몰 스텝프처(Small Sculpture)>⁷는 주차 타워를 참조한 투명 구조 위에 진열되어 있다. 이렇듯, 가장 크고 작은 스케일의 점토 조각이 명백히 주는 재료의 해상도는 공간 연출에 의해 표면의 질감이 부각되는 반면에, 사진 조각은 더욱

4					
‘야시피케이션’은 2020년 해외 트위터에 등장했던 용어로 셀레브리티가 소셜 미디어에서 과도한 보정으로 ‘밈(Meme)’화 되어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미화, 왜곡된 얼굴 이미지는 새로운 버전의 부캐(부캐릭터)로 다양한 인공지능 보정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5					
권오상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클래식카와 슈퍼카, 모터사이클 다이캐스트 모형들을 수집해 왔다. 다이캐스팅은 대상의 원형 틀을 만들어 주조해서 떠내는 것으로, 휴먼 스케일의 1/6, 1/12, 1/18, 1/87까지 다양한 모형 스케일의 프로토타입이다.					
6					
르망24(1923-)는 프랑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경주로 24시간 안에 가장 많은 랩(lap)을 돌고 하루 동안 가장 긴 거리를 달린 차가 우승하는 경기로 차의 내구성으로 승부를 가른다.					
7					
작가는 르망24에 우승 및 이슈화 되었던 차종들을 선별해 기능이 완벽하게 제거된 1/43 스케일로 스텝피와 시바틀을 이용한 소조 형식의 작은 조각을 제작했다. <더 스텝프처>의 축소된 가장 작은 미니어처 버전의 해당 시리즈는 좌대와 차의 물체가 일체화 되어 가장 완벽하게 감상할 수 있는 조각에 주목한다.					

OUR SET RENEWING THE RESOLUTION

OUR SET: RENEWING THE RESOLUTION OF SCULPTURES
SUNGAH SERENA CHOO

This essay *Our Set: Renewing the Resolution of Sculptures* views the spatial interpretation of OURLABOUR and Osang Gwon's overall sculpture works in a new perspective. In the form of a collaboration Gwon and OURLABOUR presents an exhibition experience under various themes deviating from former institutional exhibition formats, renewing Gwon's sculptures into a contemporary sense. In particular in OURLABOUR's commercial display, brands are adopting the sense of contemporary art, meeting the needs of consumers for real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in the world of today where online distribution is expanding, focusing on storytelling in a so-called form of 'collaboration.' Thus, by appropriating the language of commercial space-product branding, Gwon and OURLABOUR shape the branding strategy of "our set" so that the sculpture series practiced over two decades can operate in the concepts of space and content.

As the exhibition *Our Set: OURLABOUR x Osang Gwon* divides each sector into 'sets', this essay compiles the main displaying techniques used by OURLABOUR and new perspectives on Gwon's sculptures into four sets. "SET 1. Set and Display" throws questions on the 'imaging' of sculptures in the illusion of fake/virtual environments of 'sets.' Here the showcase as the place, and 'editorial photography', which processes and distributes products, as the environment and device immediately reveal Gwon's sculptures as being the carrier of cultural symbols. This essay deals with the new position of sculpture where conventional advertising strategies of products and images achieve the exclusiveness of aesthetics. "SET 2. Lighting and Two Dimensionality" focuses on the degree of brightness and structure of the technical displaying methods used by OURLABOUR. It can be seen how the role of lighting flattens the surface and pattern images of photographs covering the sculptures to reverse the sculptural characteristics. This summons stage props that unify the whole space as well as sets which are part of the design sector, perceiving Gwon's sculpture in a parallel perspective. Lastly, "SET 3. Taxidermy of Scale and Resolution" and "SET 4. Low Resolution Mass and Display" place sculpture, incorporated in the external factors of public domains, on the central axis of size and resolution, implying a sense of image that transcends the physical viewpoint of standing upright.

The issue covered in the aforementioned four topics is how active spatial collaboration and admittance of equal positions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read the medium practice dealt by the artist. Furthermore, the displaying methods which summoned the stage and equipment of commercial language enable the sculptures and the whole space to practically function in the exhibition,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mercial frame presents the experience of 'consumption' and 'enjoyment' enabling to flexibly contemplate on the aspects of product aesthetics. As such, *Our Set* awakens that a space unfamiliar to the exhibition space but which brings familiarity to a certain degree to the visitors, can be transferred into a liberating space of capitalism toward consumption with installation sculpture objects. In the end, although the roots of traditional sculpture are deeply engraved in Gwon's sculpture DNA, but through the practice of medium throughout the years his sculptures covered through the collaboration has taken a turn and adopted an attitude of using a new 'deodorant' to sense a whole flatter image.

[SUNGAH SERENA CHOO] is an independent curator who produced numerous exhibitions and writings. Exhibitions curated by Choo include *Ziggy Stardust*, *COLD PITCH*, *PRIME MONUMENT*, *Bek Hyunjin: Public Hiding*, the 8th Amado Exhibition Award *Shadowland*, *The Snark: Suddenly Vanishing Away*, Hyejin Jo Solo Exhibition *Shape*, *From the Side: Reading Documents*, and *Things: Sculptural Practice*. She is also the co-founder of BGA.

INTERVIEW

OUR SET

[아워레이보] 아워레이보는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창작자 집단입니다. 전시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디자인, 설계, 제작 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최근 전시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면서 그와 파생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들의 그룹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우리의 즐거운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오상 작가의 작업은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되어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권오상 작가의 작업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어떠한 연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미술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의 조건과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에서 이용하는 전시 구성 방식이나 조명 활용, 연출 방식을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미술관 공간에서 색다른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권오상 작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시공간을 미술관이 아닌 주차장, 백화점, 모터쇼 전시장, 스튜디오 촬영장, 차량용 도장을 하는 도장 부스 등의 환경을 연출하였고, 그 공간 안에서 권오상 작가의 작업을 이전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간과 작품의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권오상] 저는 조각을 만드는 조각가 권오상입니다. 주로 사진을 이용하여 조각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조각의 역사를 바탕으로 재조각하는 작업, 정물 조각도 많이 하지요.

이번 전시는 회고전이나 세미 회고전 같은 규모입니다.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워레이보와의 협업은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조각이 강조되는 작품을 만들거나 전시를 해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저의 작품이 가진 특징과 연결된 공간연출의 아이디어를 아워레이보가 많이 줬습니다. 특히 사진이나 세트를 구성하는 스튜디오는 저의 작업실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연출은 저의 작품과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미술은 조각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사진을 조금 더 강조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아워레이보와의 이번 협업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INTERVIEW

[OURLABOUR] OURLABOUR is a creator group engaged in various exhibition-related activities based on contemporary art. We are a group of people who design, plan, produce, etc. to conduct various researches on the ways of showing through exhibitions. Recently as exhibitions are used in many forms, we play various roles in the sectors derived from them. We are a group of artists, designers and organizers so we pursue 'something diverse and fun' and work under the keyword 'our fun labour.'

Since Osang Gwon's works are built up so solidly we thought a lot about 'how we could intervene' in this exhibition. So we studied on ways to show Gwon's works differently than usual, and really pondered on how to display his works.

First of all, we tried to break away from the conditions and environments normally applied to museums, and tried to show in various ways exhibition formats used in other sectors or the usage of lightings and displaying methods. We thought about what different ways could be shown in an art museum, and how to use them to affect Gwon's works. So we created environments such as a parking lot, department store, auto show, filming studio, or an automotive paint booth in the exhibition halls rather than an art museum, and in those settings we wan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view the works of Osang Gwon differently than before and create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venue and his works.

[OSANG GWON] I am sculptor Osang Gwon who creates sculptures. I mainly produce sculptures using photographs. I also make a lot re-sculpted works based on the history of sculpture and still life sculptures.

This exhibition is of a scale of a retrospective or a semi-retrospective. By collaborating with OURLABOUR, who are active in the art scene, I thought that a new kind of synergistic effect could be created, and eventually it brought good results. I have been making works or holding exhibitions where sculptures are emphasized, and in this exhibition OURLABOUR provided many ideas on spatial designs that are related to the traits of my works. In particular I have a studio that composes photos or sets where I work, so I believe the way they presented the space went well with my works. Also since sculptures are more emphasized in today's Korean Contemporary Art, I thought that it would be fun to highlight photography a little bit more in this period. I really enjoyed this collaboration with OURLABOUR.

BIOGRAPHY

OUR SET

아워레이보
OURLABOUR

OURLABOUR는 조각, 설치미술,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플라워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모인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개념을 실체화 하고, 만들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실험을 거듭한다. 미술관이 나 갤러리 등 미술 기반의 전시공간 디자인부터 기업의 아트 프로젝트 기획, 실현을 아우르며, 예술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감각과 경험'을 제공한다.

[주요 전시]	
2022	«Keep Going #1»,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한국
—	«Object Univers»,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2021	«PERIGEE WINTER SHOW 2021», 페리지갤러리, 서울, 한국
—	«THE SOLO: 혼자 영역», 갤러리 나인, 서울, 한국
—	«KF창립 30주년 기념특별전: 이음», KF 갤러리, 서울, 한국
—	«HYBE INSIGHT: Sound Wave, Sound Pulse, Euphoria», 하이브 신사옥, 서울, 한국
—	«은거필품(隱居必需品)», 갤러리 ERD, 서울, 한국
—	«Express2021», LG 유플러스 일상비밀상익툼, 서울, 한국
2019	«2019 서울 포커스: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8	«2018 SeMA 예술가 길드: 만랩(萬LAB)»,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BI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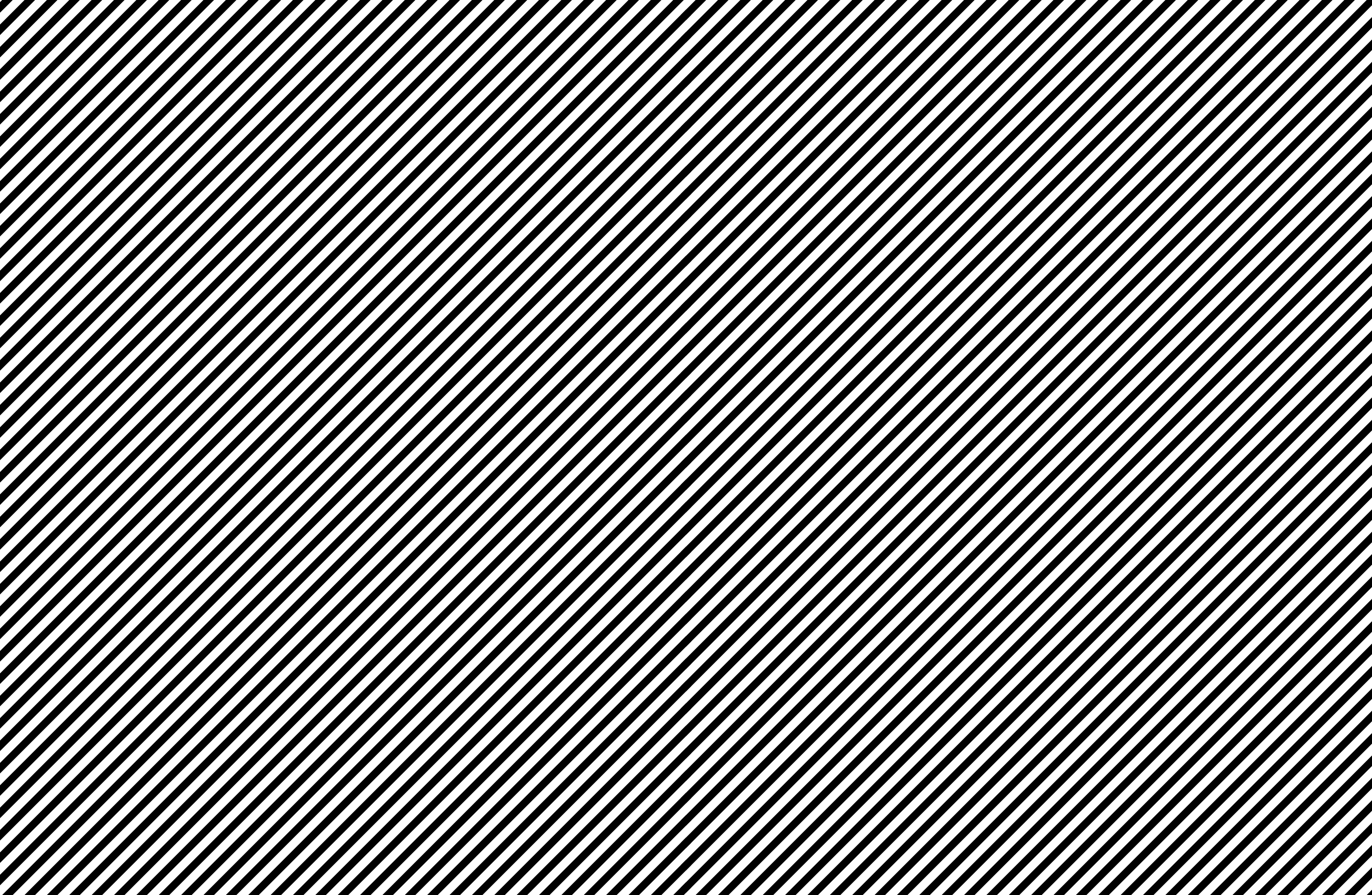
OURLABOUR is a group of creative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sculpture, installation, graphic design, spatial design, flower design and so on. The labours performed by the group are the fruition of ideas and endless experiments on ways of making and interpreting. They present expansive 'senses and experiences' based on art with a wide range of projects from designing exhibitions for art museums or galleries to operating visual art projects for companies.

[EXHIBITIONS]	
2022	<i>Keep Going #1</i> , Willing N Dealing, Seoul, Korea
—	<i>Object Universe</i> , Ulsan Art Museum, Seoul, Korea
2021	<i>PERIGEE WINTER SHOW 2021</i> , The Page gallery, Seoul, Korea
—	<i>THE SOLO</i> , Gallery 9, Seoul, Korea
—	<i>Creating Connections</i> , KF gallery, Seoul, Korea
—	<i>HYBE INSIGHT: Sound Wave, Sound Pulse, Euphoria</i> , HIBE, Seoul, Korea
—	<i>A reclusive necessity</i> , Gallery ERD, Seoul, Korea
—	<i>Express2021</i> , LG U plus A gap in daily routine, Seoul, Korea
2019	<i>Nothing Twice</i> ,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8	<i>Seoul Museum of Art Artist Guild</i> , Nam-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권오상
OSANG GWON

OURLABOUR × OSANG GWON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	
2022	«Still Life», 에브리데이몬데이 갤러리, 서울, 한국	2022	<i>Still Life</i> , EVERYDAY MOONDAY Gallery, Seoul, Korea
2021	«조각의 시퀀스», 공간 타입, 서울, 한국	2021	<i>Sequence</i> , TYPE, Seoul, Korea
2016	«릴리프릴리프», 윌링앤딜링, 서울, 한국	2016	<i>Relief Relief</i> , Wiling n Dealing, Seoul, Korea
—	«The Sculpture»,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중국	—	<i>The Sculpture</i> , Arario Gallery, Shanghai, China
—	«The Art of the Image – New Sculpture», 에르메스, 시드니, 호주	—	<i>The Art of the Image – New Sculpture</i> , Hermes, Sydney, Australia
—	«Recontemporary», 워터풀갤러리, 뉴욕, 미국	—	<i>Recontemporary</i> , Waterfall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	«New Structure and Relief»,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2015	<i>New Structure and Relief</i> , Arario Gallery, Seoul, Korea
2015	«구심점들», 아라리오뮤지엄, 탐동바이크샵, 제주, 한국	—	<i>The Pivots</i> , ARARIO MUSEUM in Tapdong Bike shop, Jeju, Korea
—	«New Structure», 백아트, 로스앤젤레스, 미국	—	<i>New Structure</i> , Baik Art, Los Angeles, United States
—	«New Structure», 오키나와현대미술센터, 오키나와, 일본	2014	<i>Structure</i> , Perigee Gallery, Seoul, Korea
2014	«Structure», 페리지갤러리, 서울, 한국	—	<i>Osang Gwon</i> , JOYCE PARIS, Paris, France
—	«권오상», 조이스파리, 파리, 프랑스	—	<i>Osang Gwon: The Deodorant Type</i> , Statoil Art Programme, Statoil, Bæ rum, Norway
—	«권오상: 데오도란트 타입», 스타트오일아트 프로그램, 스타트오일, 바룸, 노르웨이	2013	<i>Osang Gwon</i> , Temenggong Artists in Residence, Singapore, Singapore
2013	«권오상», 테벙공 아티스트인레지던시, 싱가포르, 싱가포르	2012	<i>Osang Gwon</i> , ARARIO GALLERY, Seoul, Korea
2012	«권오상»,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CREDIT

[전시]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

2022.2.25.-5.22.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주최

수원시립미술관

관장

김진엽

책임

신은영

기획·진행

윤여진

교육

이연주

전시지원

지용수, 김혜인, 오진영, 김예현

행정지원

남상은, 오성경, 송영창, 심유선,
김별, 김민선, 김진백, 최오섭,
박준철, 방득춘, 염선영

홍보

이기석, 박현주, 최현희, 이서원

그래픽디자인

신신

운송설치

(주)솔로몬아트

영상제작

파이크미디어

사진

김도균, 아워레이보

번역

김지나

[EXHIBITION]

OUR SET: OURLABOUR ×

Osang Gwon

Feb. 25, -May. 22, 2022

Suwon Museum of Art
Space Gwanggyo

Organized by

Suwon Museum of Art

Director

Kim Jinyup

Senior Curator

Shin Eun Young

Curated by

Yoon Yeo Jin

Education

Lee Yeon Ju

Exhibition Support

Shin Eun Young, Ji Yong Su,
Kim Hye In, Oh Jin Young,
Kim Yea Hyun

Administrative Support

Nam Sang Eun,
Oh Sung Kyoung,
Song Young Chang,
Sim Yu Sun, Kim Byeol,
Kim Min Sun, Kim Jin Baek,
Choi O Seop,
Park Joon Chul,
Bang Deuk Chun,
Yeom Sun Young

Pubic Relations

Yi Gi Seok, Pak Hyon Chu,
Choi Hyun Hee,
Lee Seo Won

Graphic Design

Shin Shin

Shipping and Installation

Solomon Art. Co., Ltd

Equipment Installation

Pykemedi

Photography

Kim Do Kyun, OURLABOUR

Translation

Kim Ji Na

[출판]

발행인

김진엽

편집

윤여진

필진

추성아, 윤여진

디자인

신신

제작

한울기획

발행

1판 1쇄 발행 2022년 5월

발행처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Tel. 031 228 4195
suma.suwon.go.kr

© 2022 수원시립미술관

이 책은 2022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
전을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 이미지 및
글의 저작권은 수원시립미술관,
작가, 저자 및 저작권 소유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본 도록에
실린 작품 사진의 저작권자를
올바르게 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부적절하게
표시하였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발간등록번호

71-3740410-000023-01

ISBN 979-11-87986-48-5

값 26,000원

[PUBLICATION]

Publisher

Jinyup Kim

Editor

Yoon Yeo Jin

Contributor

Sungah Serena Choo,
Yoon Yeo Jin

Design

Shin Shin

Production & Printing

Hanwool Co.,Ltd

Publication

1st Published in May 2022

Published by

Suwon Museum of Art
Space Gwanggyo
140, Gwanggyojungang-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Tel. 031 228 4195
suma.suwon.go.kr

© 2022 Suwon Museum
of Art

This catalogue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Our Set: OURLABOR ×
Osang Gwon*. No part
of this book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each
copyright holders: Suwon
Museum of Art, the artist,
respective authors and
other copyright holders. All
Rights Reserved.

Suwon Museum of Art
has made every effort
to duly acknowledge
and correctly credit all
photographers whose work
has been reproduced in
this catalogue, and we will
make revision afterwards if
an image credit has been
incorrectly attributed or
omitted.